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시각장애인 이용자 평가를 통한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 정승현

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4. 연구 설계 및 방법
5. 분석 방법 및 분석 틀
6. 대표 사례(P10)
7. 예상 기여 및 향후 계획

1. 연구 배경

기록정보서비스(Archival Reference Service)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돕는 행위
- 인터넷을 통한 기록물 검색에도 중요한 역할 수행
- 기록정보서비스의 공공성

장애인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

- 연구 부족 : 장애인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미진
- 사례 부족 : 물리적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의 높은 진입 장벽 존재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역할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기록관 온라인 서비스 창구로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웹 환경을 제공해야 함

웹 접근성

- 현준호(2006) :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어떠한 사용자든지, 또는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연구 필요성

자동평가의 한계

- 기술적 오류 탐지는 가능하나, 실제 이용 맥락과 장벽 파악에 제약 있음
- 실제 이용 장벽 파악 어려움

전문가 평가의 한계

- 스크린리더 기반 과업 수행 문제를 포착하지 못함
- 사용자 관점 부재

기록관리학 공백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평가 주체로 한 과업 기반 접근성 연구가 부재함

3.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평가와 시각장애인 이용자 평가를 병행하여 기술적 접근성 오류와 실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기록관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K-WAH 자동평가 결과,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기술적 접근성 오류가 나타나는가?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주요 기록정보 서비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접근성 장벽을 경험하는가?

자동평가에서 탐지된 오류와 이용자 평가에서 관찰된 장벽은 **어떻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가?**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접근성 개선방안은?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1)

1단계 문헌연구

- 기록정보서비스 개념
- 웹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 시각장애인과 정보접근 유형

상위 영역	서비스 유형	선행연구와의 대응 관계
정보 제공	기관 및 이용 안내 서비스	'기관 및 이용 안내'(장희정, 2012), '기관 소개 및 안내'(김현지·이해영, 2009), '기록관 안내'(설문원, 2008)
	정보 제공소장기록 및 컬렉션 안내 서비스	'소장기록 안내'(설문원, 2008), '소장기록 이용 안내'(장희정, 2012)
정보 검색 열람	검색 및 탐색 서비스	'검색도구 제공·검색서비스'(설문원, 2008), '검색 용이성·계층성'(장희정, 2012), '검색도구'(임진영·이해영, 2020), '검색 기법'(김현지·이해영, 2009)
	정보 검색 열람검색결과 활용 서비스	'검색결과의 활용성'(장희정, 2012), '검색 결과 활용(임진영·이해영, 2020)', '검색결과의 활용(김현지·이해영, 2009)'
	정보 검색 열람온라인 열람 및 이용 신청 서비스	'열람서비스(설문원, 2008)', '온라인 열람(임진영·이해영, 2020)', '기록물 이용(장희정, 2012;김현지·이해영, 2009)'
이용자 지원	기록 콘텐츠 및 전시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설문원, 2008)', '전시·기록 정보콘텐츠(김현지·이해영, 2009)', '다양성·적합성(장희정, 2012)'
	이용자 지원교육 및 연구 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연구지원'(설문원, 2008), '교육 및 연구 지원'(임진영·이해영, 2020)
	이용자 지원출판·홍보 및 활용 촉진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홍보·'출판'(설문원, 2008), '홍보'(임진영·이해영, 2020)
	이용자 지원상호작용 및 이용자 참여 서비스	'상호작용성'(장희정, 2012), '이용자 참여'(임진영·이해영, 2020), '상호작용'(김현지·이해영, 2009)
이용 환경	웹 인터페이스 및 접근성 지원 서비스	'네비게이션', '화면 디자인', '접근성'(장희정, 2012), '온라인 접근성'(임진영·이해영, 2020)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2)

2단계 국외 사례조사

- THA, NARA, LAC 웹사이트의 제도적 인프라 조사 후 개선방안 도출

항목	TNA(영국)	NARA(미국)	LAC(캐나다)	국가기록원(한국)
법적 근거	「Equality Act 2010」, 「Public Sector Bodies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No. 2) Accessibility Regulations 2018」	「재활법(Rehabilitation Act)」제508조(Section 508)	「Accessible Canada Act」(ACA 20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최신 적용 기준	WCAG 2.2 AA	WCAG 2.0 AA	WCAG 2.1 AA	KWCAG 2.2
접근성 선언문	구체적 선언문	디지털 접근성 페이지(준수 선언 중심)	접근성 계획 및 연간 진행 보고서 공개	인증마크 게시 선언문 미확인
비준수 항목 공개	성공기준 번호 포함 구체 공개	제한적	항목별 장벽 인정, 성공기준 미명시	미흡
테스트 이력 공개	DAC 테스트 연도 공개	제한적	2028년까지 전수 감사 목표 명시	미흡
보조기기 호환성 명시	특정 스크린리더 명시	특정 스크린리더 미명시	특정 스크린리더 미명시	미흡
기록 검색 서비스 접근성	Discovery 포함	제한적	이용자 52% 장벽 경험 공개	미흡
콘텐츠 형식	HTML, PDF, 스캔자료 등	HTML, PDF, Word 등	디지털화 기록물, 전자문서, 스캔 이미지 등	PDF, HWP, Excel, mp4 등
대체 형식 제공	점자, 오디오, 큰 글자 등 요청 가능, 10영업일 응답	대체버전 요청 가능, 기간 미명시	점자, 오디오, 큰글자 등, 5영업일 응답	미흡
피드백 채널	이메일, 전화, 라이브챗, 외부 구제 절차(EASS) 안내	508 전용 이메일, TTY 711	온라인 양식, 이메일, 우편, 전화, TTY, 5 영업일 응답	미흡
이용자 참여 평가	UX 테스트 참여 경로 마련	제한적	2026년까지 장애인 참여 협의 프로세스 수립 목표	제한적
종합 평가	가장 투명하고 실무지향적	법적 기반 및 전담 채널 강점, 투명성 중간	조직적 개선 체계 강점, 기술적 세부 공개 미흡	인증 기반 양호, 투명성 대체 절차 이용자 참여 보완 필요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3)

3단계 자동평가

- 국가기록원 주요 페이지를 선정하여 K-WAH 도구로 KWAG 2.2 기반 접근성 오류 점검
- 항목별 오류율/페이지별 분포 파악하여 기술적 접근성 오류 유형과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함

원칙	검사 항목	점검 항목	점검 단위	점검수	오류수
1. 인식의 용이성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제공	이미지	347	0
2. 운용의 용이성	6.4.2 제목 제공	페이지 제목 제공	페이지	12	0
3. 이해의 용이성	7.1.1 기본 언어 표시	기본 언어 정의	페이지	12	0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새창 열림 사전공지	링크	434	12
	7.3.2 레이블 제공	입력요소 레이블	입력요소	205	5
4. 견고성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오류 발생 여부	페이지	12	12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개별 오류	개별		83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4)

4단계 이용자 평가

-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 이용자를 대상으로 5개의 과업을 수행하여
- 화면 녹화, 관찰 기록, 사후 설문 및 면담을 수행하여 실제 이용 장벽 및 개선방안 도출

1. 참여자 선정

- 중증 시각장애인, 최근 1년 내 공공 웹 이용 경험 보유

2. 장비 환경 설정

- 센스리더 중심, 크롬 브라우저, 개인 설정 유지

3. 과업 수행

- 총 5가지의 과업을 수행함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4)

과업 시나리오

- 1) 대전 본원 전시관의 전신 내용과 견학 안내 정보를 찾아주세요.
- 2) 진행자가 제시하는 키워드로 기록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문 서비스 온라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록 1건을 선택해 주세요.
- 3) 방금 선택한 기록 상세페이지에서 생산기관, 생산연도를 확인하고
원문 또는 파일을 열 수 있는 버튼이나 링크가 있는지 찾아 접근해 주세요.
- 4) 기록물 컬렉션에서 디지털 컬렉션 또는 전시 컬렉션을 찾아 콘텐츠 1건을 선택한 뒤 해당 콘텐츠의 제목
과 소개 내용 또는 주요 하위 주제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5)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기록물 사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
신청 절차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을 파악해 주세요.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4)

4. 데이터 수집

- 화면 녹화 및 녹음으로 스크린리더 탐색 패턴 및 행동을 파악함

5. 사후 면담

- 반구조화 면담으로 이용자 경험, 접근성 장벽 원인을 파악함

6. 분석

- 사건 단위로 코딩 후 KWCAG 2.2 매핑하여 자동평가 결과와 교차 비교함

5. 분석 방법 및 분석틀

1. 자동평가 분석

- 자동평가 결과를 KWCAG 2.2 4원칙 체계로 재분류하고, 항목별 오류율과 페이지별 분포를 분석함

2. 과업 수행 분석

- 5개 과업의 완료율, 소요시간, 오류 발생 빈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3. 화면 녹화 분석

- 스크린리더 탐색 패턴과 장벽 사건을 분석함

4. 면담 분석

- 내용분석을 통해 주관적인 어려움과 원인 그리고 개선 요구를 파악함

5. 통합 분석

- 자동평가와 이용자 평가 교차 분석을 통해 장벽을 분류함

6. 이용자 대표 사례 분석

구분	P10 대표 사례
과업	3.1절 기록 검색 후 상세검색에서 원문서비스 온라인 제공 기록 선택
과업 성공 여부	성공했으나 반복 오류와 높은 탐색 부담 발생
관찰 장면	공개구분, 원문서비스, 기록물 형태 등 필터를 순차 탐색하다가 "검색 조건을 선택해주세요" 오류 반복
참여자 설명	입력 서식이 많고, 어떤 필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렵다고 설명
KWCAG 매핑	5.3.3 명확한 지시사항, 7.3.1 오류 정정, 7.3.2 레이블 제공
연구 의의	자동평가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실제 이용 맥락의 접근성 장벽 확인

6. 예상 기여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평가와 시각장애인 이용자 평가를 결합하여 기술적 접근성 준수 여부와 실제 이용 경험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장애인 이용자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를 보완하고, 기록관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에 실제 장애 이용자 경험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연구는 참여자 자료에 대한 코딩과 KWCAAG 2.2 기반 매핑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후 자동평가 결과와 이용자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자동평가에서 탐지된 문제와 실제 이용 과정에서 관찰된 장벽이 어떻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지 분석하고자 함.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접근성 장벽을 중심으로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임.

참고문헌

- 국가기술표준원(202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국가기술표준 원.
- 김미정, 김자미 (2018). 한국의 웹 접근성 평가 연구동향 분석.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7(1), 33-42. <https://doi.org/10.3745/KTSDE.2018.7.1.33>
- 김현지, 이해영 (2009).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형 개발과 서비스 평가 -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59-78.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2.059>
- 방기영, 이능금, 이유진, 한아랑, 김용 (2015).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5-48.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025>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3), 249-271. <https://doi.org/10.3743/KOSIM.2008.25.3.249>
- 이용정(2015).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자동 및 전문가 평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283-30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4.283>.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3.001>
- 이효진, 김지현 (2021).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검색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87-215.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3.187>
- 장희정 (2012).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51-70.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051>
- 조윤희 (2009).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제고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335-354.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335>
- 한국기록전문가협회(2014).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 <https://www.archivists.or.kr/795>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2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감사합니다.

지방문화원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260529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지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지원팀 대리

euniroid@gmail.com

순서

1. 연구 배경
2. 연구 질문
3. 연구 방법
4. 초기 분석 주요 이슈
5. 향후 연구 과제
6. 참고 문헌

본 발제는 논문 목차를 따르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석사학위 연구의 초기 분석 단계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연구 배경

- 지역 소멸의 위기와 함께 지역의 기억 또한 빠르게 소실되고 있음
- 기록학계의 오랜 질문 가운데 하나, 공공영역의 기록만으로 사회의 기억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가?
- 학계의 흐름 역시 증거 관점에서 기억과 정체성, 공동체, 나아가 생성 중심의 논의로 확장되어 옴
- 지역 현장에서 지방문화원은 오랜 기간 지역 기록화를 수행해왔으나, 기록학계의 연구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은 민간기록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내, 두 조직의 역할과 관계를 다룬 기록관리학 영역의 실증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
- 이에 본 연구는 두 조직을 통해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함

연구 질문

- 지방문화원의 지역 기록화는 기록관리학의 민간기록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민간기록 영역 확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두 조직은 지역에서 민간기록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두 조직은 각자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민간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현재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의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질문

기록이라는 세계의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면 — 지역 기록의 영역은 누가 고민할까?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공공 영역의 기록관리기관

- 규모 : 전국 228개
- 근거법 : 공공기록물법
- 업무 : 평가·폐기·이관 중심

지방문화원

민간 영역의 기록생산·수집주체

- 규모 : 전국 232개
- 근거법 : 지방문화원법
- 업무 : 수집·생산 중심

두 조직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로 지역 민간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연구 방법

- 문헌연구와 심층면담 기반 질적연구 수행
- 인터뷰 기간 : 4.14.(화) ~ 5.18.(월)
- 참여자 : 26명 (지방문화원 실무자 16명,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원)* 기록연구사 10명)
 - 문화원은 최근 3년 내 지역 기록화 사업/활동이 활발한 곳 중심 유의선정
 - 기록관(원)은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연구모임’에서 활동 중인 민간기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록관 선정
- 총 31시간 인터뷰 데이터 수집 및 전사 완료, 현재 초기 분석 단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기능적 공통성에 주목하여 기록관과 기록원을 함께 포함하였음

기록·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식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①

지방문화원

- 기록의 유형을 책·사진·영상·유물·박물관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
- 마을조사, 구술채록, 시민기록가 양성교육 등 지역사와 문화활동 접목한 기록 활동 수행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사업)과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근거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중심
- 매뉴스크립트(manuscript repository) 접근 방식의 ‘기록화’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학 아카이브’
- 기록 활동이 축적될수록 문화원 내부에서는 공적 보존체계 및 전문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타남

기록·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식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①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에 근거한 법정 업무 중심, 민간기록 업무 수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수반됨
 - 대체로 문서 형태의 기록물 중심 인식
 - 시민과 가까이 갈수록, 형태 구분의 범위도 확장되며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의 ‘날 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인정
 - 민간기록 업무는 공모전 방식의 수집(기증) 사업, 기록화 사업(용역), 지역민 참여·주체 프로그램
 - 일부 면담에서는 자료집 형태 결과물을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나타남
- 기록전문직 간에도 기록의 개념과 실천 방식에 대한 포용력/수용도 차이 존재

조직 구조와 역할 인식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②

- 지역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사·지역문화 허브 역할 수행하기도 하나,
공공영역에서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거나 미약할 경우
 - 일부 소수 문화원이 지역사 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기록관의 역할 확장이 어려워지는 긴장도 나타남
 - 기록관은 조직 내부에서조차 서무 수준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축소하여 인식하는 어려움 존재
 - 기록관은 민간기록 업무 시작 후, 오히려 기관 내부에서 지역 기록을 찾는 창구 역할이 부여되기도 함
- 문화원과 기록관의 위상·역할은 지역 내 문화기반 수준 및 조직 내 기록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과도 연결

지역 민간기록 영역의 연결과 협력 양상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③

느슨한 연결은 이미 존재

- 기록관 업무에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거나 공동 회의에 참석한 사례
- 담당자 간 왕래와 정보 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서로 접촉했던 경험 존재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

- 일부 연구사는 문화원과 기록관 모두 공간/설비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인식, 향후 기록관/문화원사 건립 시 공동 보존공간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함

지속적 협력 사례도 존재

-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관의 수집 기록물 분류 및 정리(설명)을 문화원 부설 연구소가 수행하며 협력 관계 유지

지역 민간기록 영역의 연결과 협력 양상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③

협력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작동

- 기록관은 제도·행정·기록물 중심 언어 사용, 문화원은 지역문화·지역사·기억 중심 언어 사용
- 소관 부서의 차이도 연계·협력의 어려움으로 작동
 - 기록관 :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등 / 문화원 : 문화예술과
- 일부 문화원은 수집 기록의 소유권, 관리 권한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 이러한 경향은 ‘기록관’ 조직에 대한 적대감이라기보다는,
 - 오랜기간 문화원이 지역에서 공공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공백을 매워왔으나,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점차 그 영역을 공공영역이 채워가면서 경험해 온 역할 축소로 인한 위기감의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음

구조적 한계와 긴장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

지방문화원

- [근거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17417호)
- [자치법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나, 법률상으로는 민간법인, 지역 안에서는 ‘공공기관 같은’, 허들이 낮은 공공기관
- 문화원 회원의 지지를 받는 문화강좌 사업보다 기록화 활동의 영역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
- 설령 지속해 나가더라도 보조금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기에 수집·생산주체에서 관리주체로서의 확장에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일정 한계에 도달한 일부 문화원은 소속 지자체로의 이관을 추진하기도 함
 - 재정자원의 한계로 인해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전문인력을 영입하더라도 기존 문화원 인력과의 역할·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구조적 한계와 긴장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 [근거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 [자치법규] ○○ 시군구 기록물 관리 조례 /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조례
- ‘1인 기록관’을 벗어나더라도,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부여되는 상황
- 조직 내부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중요성, 가치에 대한 인식 미약
- 일부 연구사들은 민간기록 영역 확장을 통해 기록관 역할과 중요성을 성과로써 보여줘야겠다는 전략적 의지
 - 단순 업무영역의 확장이 아닌, 공직사회 안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존속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 민간기록 업무에 대한 내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록전문직의 역량을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일종의 파일럿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상도 나타남

구조적 한계와 긴장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

실제 사례

- 문화원이 수집한 기록물을 문화원 공간의 한계로 인해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의 결정은 기록관 아닌 문화예술과로 → “부잣집에 입양 보내는 마음으로”
- 수집해 온 기록물이 자료실에 보존되어 있고 그중엔 귀중한 자료들도 다량 존재하나,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보존 공간 마련을 위해 별다른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도난, 화재 가능성에 불안 ...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하나”
- 민간기록으로의 확장을 꾀하다가도 문화예술과의 도서관, 문화원 업무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반복된 조직내부 및 지방의회 질의에 대한 피로 누적, 예산을 지키기 위한 협상의 지속
- 기록관 공간 문제에서 비롯된 한계 있는 영역 확장으로 인한 고민, 연구사 1명에게 과중한 책임감

주요 이슈 정리

- 두 조직을 통해 본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개선 문제는 법·제도, 조직 구조와 내부 인식, 전문성의 영역, 지역 내 위상, 개인 실천과 리더십 전략이 중첩된 복합적 사안으로 확인됨
- 지방문화원은 지역사·지역문화 기록화 과정 속에서 기록을 조직의 역사와 정체성, 역할과 연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은 민간기록 영역을 통해 조직 역할 확장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공직사회의 구조와 조직 내 인식의 한계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음
- 동시에 현장에서는 이미 느슨한 연결과 부분적 협력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면 좋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 또한 다수 확인됨
- 연구 초기 단계에는 기록관은 증거 중심, 문화원은 기억 중심의 인식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각 조직이 처한 단계와 역할에 따라 교차하거나 역전되는 양상 또한 일부 확인됨

향후 연구 과제

현재 작성 중인 논문 구성(안)

I. 서론

- A. 연구의 목적
-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C. 선행연구

II. 지역 민간기록관리와 지방문화원 및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역할

- A. 기록관리 담론의 전개와 지역민간기록 논의
- B. 지방문화원의 지역 기록화 활동
- C.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민간기록 역영 확장

III. 지방문화원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인식 분석

- A. 지방문화원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
- B.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
- C. 종합 분석

IV. 지역 민간기록관리체계 개선방안

- A. 지역 기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B. 자원 및 인프라 연계
- C. 법·제도적 기반 정비

V.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문정희, 장우권 (2008).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실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5(3), 297-320.
- 박민혁 (2022).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지역아카이빙 사례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서민희, 지윤호 (2023).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춘천문화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5), 113-124.
- 설문원 (2015).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51-171.
- 설문원 (2021a). 기록학의 지평. 서울: 조은글터.
- 설문원 (2021b).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기록학연구, 67, 267-318.
- 신동희, 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 신유림 (2025). 기록관리 패러다임과 지역 기록관의 역할 증평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35-148.
- 염수정 (2020). 지역 기록화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역공동체의 협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 윤은하 (2022). 국내 민간기록관리의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기록학연구, 72, 5-32.
- 이정연 (2021). 주민 주도 기록화 실천의 성과와 의미: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3, 95-137.
- 장대환, 김익한 (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기록학연구, 59, 277-320.
- 정영재, 이광훈 (2022). 지방조직의 확산과 동형화: 지방문화원 설립 사례 분석. GRI논총, 24(1), 1-30.
- 지수걸 (2002). 지방자치와 지방기록관리. 기록학연구, 6, 293-308.
- 홍명화, 이해은 (202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현황과 지속가능성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2), 69-94.
- Cook, Terry (2011). 'We are What We Keep: Archival Appraisal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32(2), 173-189.
- Cook, Terry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 95-120.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록물 판독 및 메타데이터 추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이성은

목차

- 1. 서론
- 2. 실험의 설계
- 3. 실험의 결과
-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 이 연구는 대형언어모델의 AI-Vision 기능을 활용하여 전자 문화문서를 판독하고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실험에는 Google의 Gemini, Anthropic의 Claude 그리고 Open AI의 ChatGPT 세 가지 언어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 추출을 요청하였다.

2. 실험의 설계

- 가. 실험대상 문서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연도: 2005년

- 나. 언어모델 선정(2025. 12. 기준)

1. Google Gemini 3.0

2. Anthropic Claude Sonnet 4.5

3. OpenAI ChatGPT 5.2

 합 천 군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

제 목 :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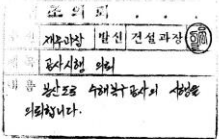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1. 공 사 명 :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2. 위 치 : 합천군 봉산면 솔곡리지내
3. 사 업 량 : 도로복구 L=300m.

공 사 명	위 치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금액	관 급	패기물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봉산 솔곡	1,153,085	947,266	171,615	34,204	

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간
5. 예산과목 :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예산(자체사업), 시설비 **【세비경예산】**

붙 임 : 설계도서 1부, 끝.



합 천 군 수

지방토목주사보 지방토목주사 건설과장 부 군 수 군 수

협조자 경리담당주사 계무과장

시행 건설과 -249/2005.2.24/ 접수 : 2005.
우 678-80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번지 /
전화 055)930-3472 전승 055)930-3449 / / 공개

2. 실험의 설계

- 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명	의무수준	요소명	의무수준
생산자	필수	일시	필수
기록계층	필수	생산이력	
기록식별자	필수	보존기간	필수
기록물명	필수	권한	필수
기술		위치	
주제		관리이력	
전자기록물 여부	필수	이용이력	
유형	필수	보존이력	
매체		관계	
크기	필수	무결성체크	

2. 실험의 설계

- 라. 평가의 척도
 - 1. 정량평가
 - 가) 정확한 추출 1.00점
 - 나) 일부만 추출 0.50점
 - 다) 부적절한 내용 0.00점
 - 2. 기술(요약)의 경우 정성평가 방식을 활용함

2. 실험의 설계

- 마. 평가 점수에 대한 가중치 설정

항목	가중치	난이도	근거
생산자	0.09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기록식별자	0.09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기록물명	0.07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기술	0.19	상	언어모델의 판단
분류	0.03	하	프롬프트대로 입력
일시	0.07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생산이력	0.09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보존기간	0.17	상	언어모델의 판단
권한	0.17	상	언어모델의 판단
관리이력	0.03	하	프롬프트대로 입력
합계	1.00		

3. 실험의 결과

- Gemini 3.0

항목	내용	평가
생산자	지방토목주사보, 지방토목주사, 건설과장, 부군수, 합천군수	1.00
기록식별자	건설과-2591	1.00
기록물명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행	1.00
기술	합천군 봉산면 솔곡리지내 도로복구(L=300m)를 위한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1.00
분류	기록물건	1.00
일시	2005. 2. 24.	1.00
생산이력	합천군 건설과	1.00
보존기간	준영구	0.50
권한	공개	1.00
관리이력	합천군 기록관	1.00

3. 실험의 결과

- Claude(Sonnet) 4.5

항목	내용	평가
생산자	작성자: 경리담당주사 협조자: 제부과장 결재자: 건설과장, 부군수, 군수	0.50
기록식별자		0.00
기록물명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행	1.00
기술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를 합천군 봉산면 송곡리지내 도로복구 L=300m 구간에 사업비 1,153,085천원(계), 947,266천원(도급액), 171,615천원(관급), 34,204천원(폐기물)으로 착공일부터 12개월간 시행하고자 함	0.50
분류	기록물건	1.00
일시	2005년	0.50
생산이력	부서명: 지방토목주사보, 건설과 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1.00
보존기간	10년	1.00
권한	공개(전부 공개)	1.00
관리이력	합천군 기록관	1.00

3. 실험의 결과

- ChatGPT 5.2

항목	내용	평가
생산자	작성자: 지방토목주사보 결재자: 지방토목주사, 건설과장, 부군수, 군수	1.00
기록식별자	□	0.00
기록물명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행	1.00
기술	합천군 봉산면 솔곡리 일원의 봉산도로에 대해 연장 300m 규모의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총사업비 1,153,085천 원을 투입하여 착공일부터 12개월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0.50
분류	기록물건	1.00
일시	2005. □. □	0.50
생산이력	건설과 합천군	1.00
보존기간	10년	1.00
권한	공개(전부 공개)	1.00
관리이력	합천군 기록관	1.00

3. 실험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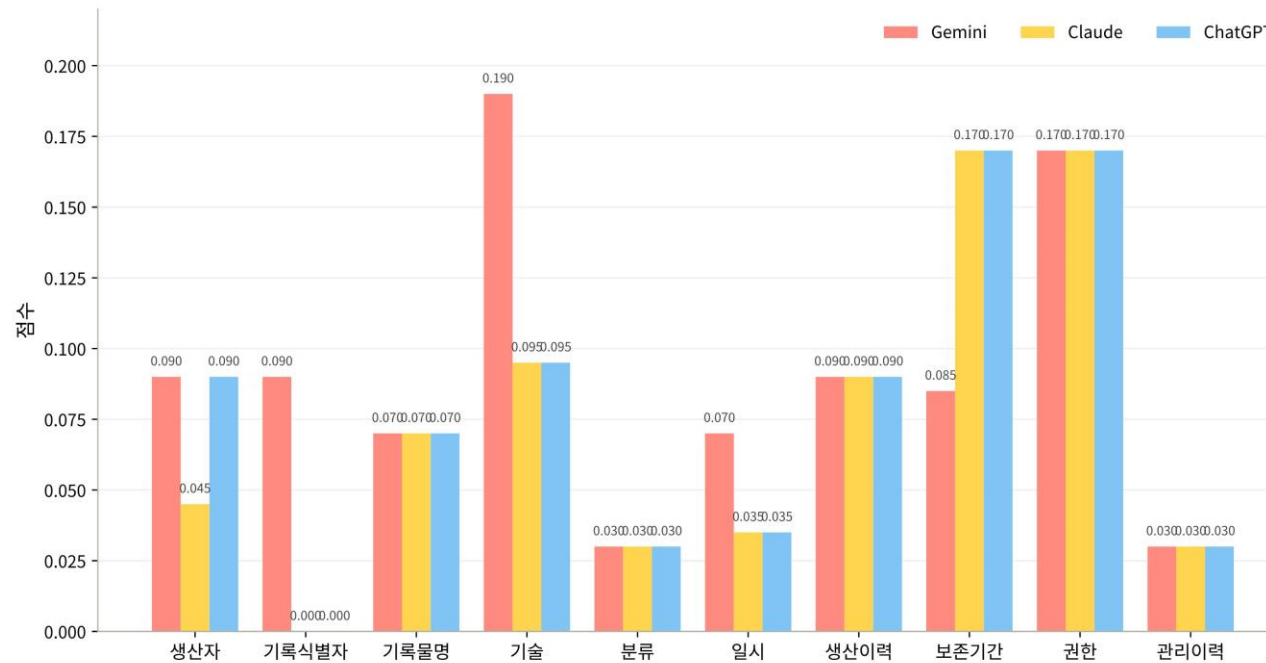
- 평가: Gemini > ChatGPT > Claude(Sonnet)

항목	Gemini	Claude	ChatGPT
생산자	0.0900	0.0450	0.0900
기록식별자	0.0900	0.0000	0.0000
기록물명	0.0700	0.0700	0.0700
기술	0.1900	0.0950	0.0950
분류	0.0300	0.0300	0.0300
일시	0.0700	0.0350	0.0350
생산이력	0.0900	0.0900	0.0900
보존기간	0.0850	0.1700	0.1700
권한	0.1700	0.1700	0.1700
관리이력	0.0300	0.0300	0.0300
합계(1.0000)	0.9150	0.7350	0.7800

3. 실험의 결과

- Gemini > ChatGPT > Claude (정확도: 91.5% / 78.0% / 73.5%)

AI 모델 항목별 점수 비교



4. 결론

- 이 실험을 통해 대형언어모델이 문서를 판독하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 결과 언어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01

판독 가능성 확인

대형언어모델의 AI-Vision 기능으로 전자문화문서 판독 및 메타데이터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

02

모델별 성능 차이

Gemini 3.0이 91.5%로 최고 성능을 보였으며, 모델별 추출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03

실무 적용 가능성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 활용 가능성 시사

참고문헌

- 김민지, 강성희, 이해영 (2024). 챗GPT를 활용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추출 사례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2), 89-112.
- 김선욱, 이혜경, 이용구 (2023). ChatGPT가 자동 생성한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의 품질 평가: 국내 도서를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0(2), 183-209.
- 김해찬솔, 안대진, 임진희, 이해영 (2017). 기계학습을 이용한 기록 텍스트 자동분류 사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4), 321-344.
- 류한조, 이경남, 황진현, 임진희 (2021). 지능형 문서처리 도입과 기록관리 변화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8, 41-72.
- 송치호 (2024). 자연어 처리의 개체명 인식을 통한 기록집합체의 메타데이터 추출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2), 65-88.
- 이용구, 김병규 (2011). 학술지 기사에 대한 메타데이터 품질의 계량화 방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1), 309-32.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에 관한 연구

발표자: 이석균

소속: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일자: 2026년 5월 29일(금)

01 문제의식

국가기록원 <2022년 공개재분류>

- 대상기록물: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영상
- 검토결과: 비공개
- 사유: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비공개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의 역할일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검토의견 : 해당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술영상(피해자명, 피해자 본적,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이며, 심의결정통지서(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무연고 조선인의 유가족명, 피해자명 등이 나오며, 한인회 피해자 유가족의 강제동원 피해진술 영상에는 피해자명, 강제동원 관련 진술, 사망자와의 관계, 피해자 본적,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 다만, 유족 및 진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본인이 진술한 녹화·녹음 기록은 공개
- 검토결과 : 비공개

[그림 1] 심의 내용

02 연구 목적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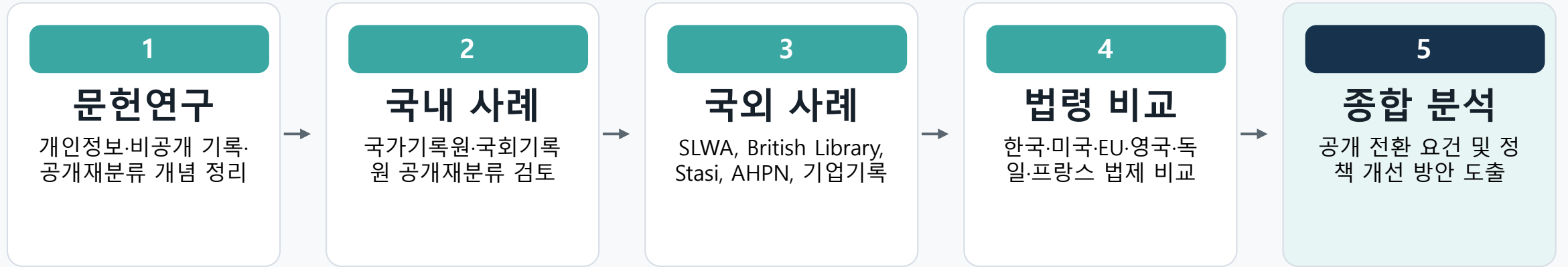
- **개념과 판단 구조 검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공개재분류 과정에서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어떻게 비공개 판단으로 작용하는지 검토한다.
- **국내외 사례와 법령 분석:** 국내외 공개 전환 사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한다.
-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향 제시:** 위의 분석을 종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연구 질문

-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인가?
- ② 공개재분류 과정에서 비공개가 유지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③ 국내외 사례·법령은 어떤 판단 요소를 보여주는가?
- ④ 공개 가능한 기록으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⑤ 제도와 실무에서 작동하기 위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03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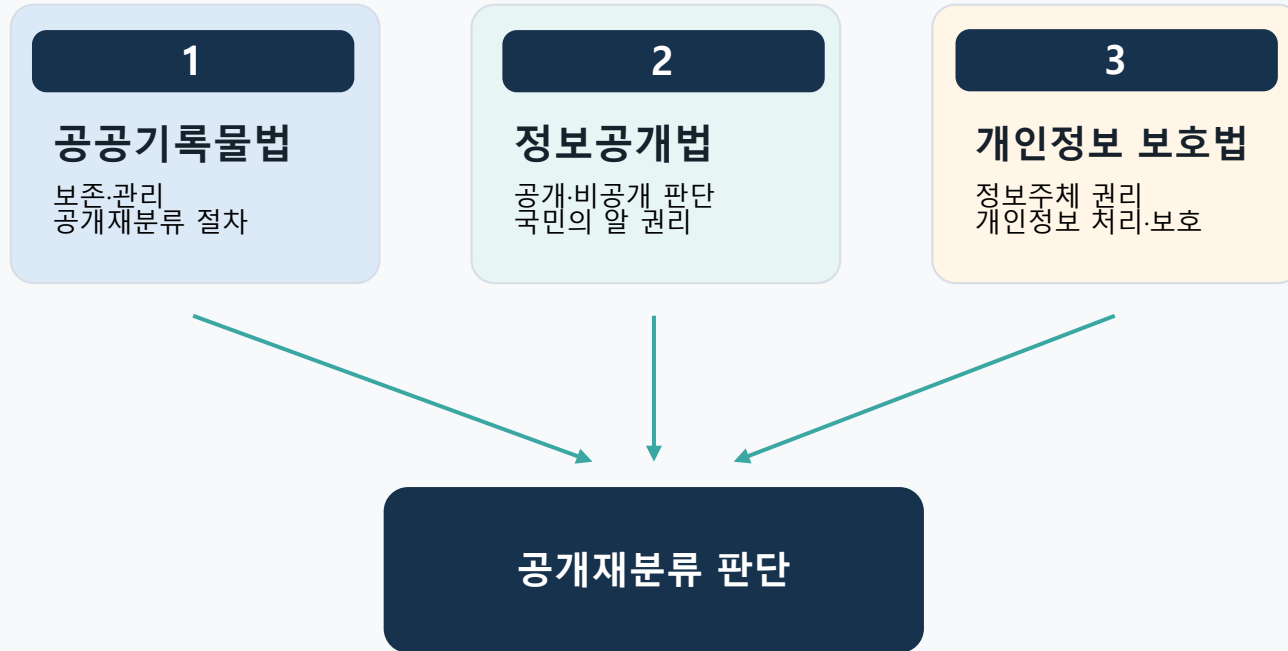
연구방법: 문헌·사례·법령 비교의 종합



04 이론적 배경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복합성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개인정보 보호법이 중첩되는 영역



- 공공기록물법은 공개재분류 절차를 마련
- 정보공개법은 공개·비공개 판단 기준을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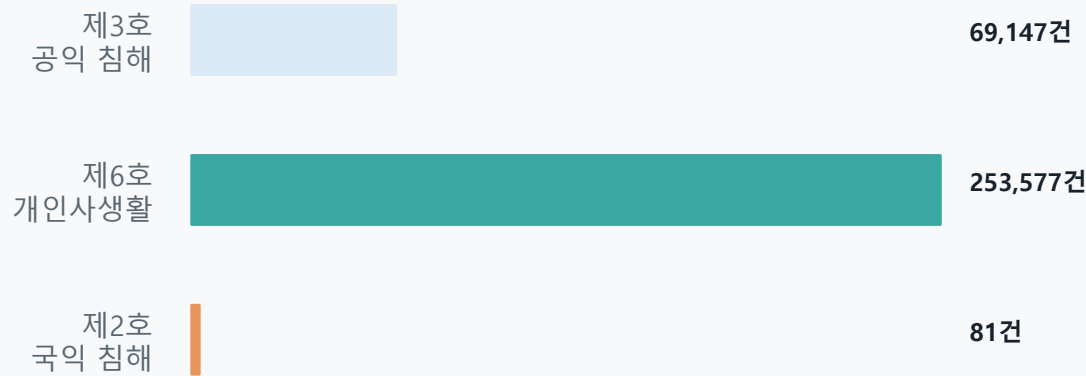
관련 법제들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실무는 가장 안전한 선택인 **비공개 유지**로 기울어질 수 있다.

05 국내 사례

국내 공개재분류의 현실: 비공개 사유 제6호 반복

국가기록원·국회기록원 사례에서 제6호 정보가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동

국가기록원 2025년 비공개 연장 기록물



국회기록원 공개재분류(2019~2021)

국회기록원에서 비공개로 유지된 기록의 주요 사유는 제6호(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공개재분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은 보호 필요성이 우선 적용됨

06 국외 사례

사례	기록 유형	공개 전환 계기	공개접근방식
호주 SLWA OHRRG	구술기록	디지털화, 접근성 확대 요구	온라인 공개, 권리 검토, notice-and-takedown
영국도서관 Sound Archive	구술·음성기록	디지털 서비스 확대, 이용자 접근 요구	발췌 공개, 교육기관 제한 접근, 스트리밍
독일 Stasi Records Archive	감시·정보기관 기록	체제 전환, 시민의 접근 요구	본인 접근권, 연구자·언론 제한 접근
과테말라 AHPN	경찰·국가폭력 기록	기록 발견, 인권기관 개입, 사법적 활용	디지털화, DB 검색, 인증 복사본 제공
기업기록	기업·경영 기록	공익적·사회적 요구 증대, 학술적 가치 평가	연구 목적 심사, 연구자 제한 접근, 선별 공개, 온라인 목록·디지털화, 대학·외부기관 협력

07 법령 비교

구분	개인정보 보호 대상	사망자 정보 처리	공익적 활용	공개재분류
한국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사망자 정보도 사생활 보호나 유족 관련 문제와 연결되어 비공개 판단에 영향을 미침.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개 가능성 인정.	시간 경과, 사망 여부, 공익성 등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족.
미국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음.	통계 연구 목적, NARA 이관·평가, 법원 명령 등 법률상 예외가 인정.	시간 경과보다는 법적 근거와 목적 적합성에 의해 작동하는 성격이 강함.
EU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망자의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사망자 정보 처리는 회원국 법률에 맡김.	공익적 보관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의 처리를 인정. 단, 적절한 보호조치 요구.	공개재분류 논의에서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통제된 활용 모델을 제시.
영국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망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직접 대상에서는 제외.	영구보존 공공기록은 생성 후 20년 이내에 TNA로 이관되며, 이관 이후 국민 열람·학술연구·역사적 검토 등 공익적 활용의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음.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가능성이 열리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비식별화나 접근 제한이 병행.
독일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망 후 10년이 지나야 이용 가능. 사망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 후 100년, 출생일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생성 후 60년을 기준.	일반 연방기록의 보호기간은 30년이지만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록이나 현대사적 인물 관련 기록은 사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한 보호기간 적용이 완화	시간 경과, 사망 여부, 정보 성격을 결합한 다층적 보호기간 구조
프랑스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개인은 사망 후 자신의 개인정보 보존·삭제·공개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음.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	사생활 보호 관련 기록은 일반적으로 50년, 사법·수사 관련 기록은 75년, 미성년자 관련 기록은 100년 기준이 적용.	개인의 사전 의사, 유족 권한, 기록 유형별 보호기간이 결합된 복합 기준 구조

08 공개 전환 요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4가지

판단 기준 · 재검토 조건 · 가치 평가 · 실행 기반

1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넘어선 다층적 판단 기준의 법제화

개인정보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민감도, 시간 경과, 사망 여부, 공익성, 학술적 가치, 부분공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법령·지침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2

시간 경과와 사망 여부를 반영한 공개 가능성 재검토

기록 생산 후 경과 기간, 정보주체의 생존 여부, 사망 이후 경과 기간, 기록 유형별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비공개 사유의 지속 여부 재검토

3

공익적 요구와 학술적 가치에 따른 기록 의미의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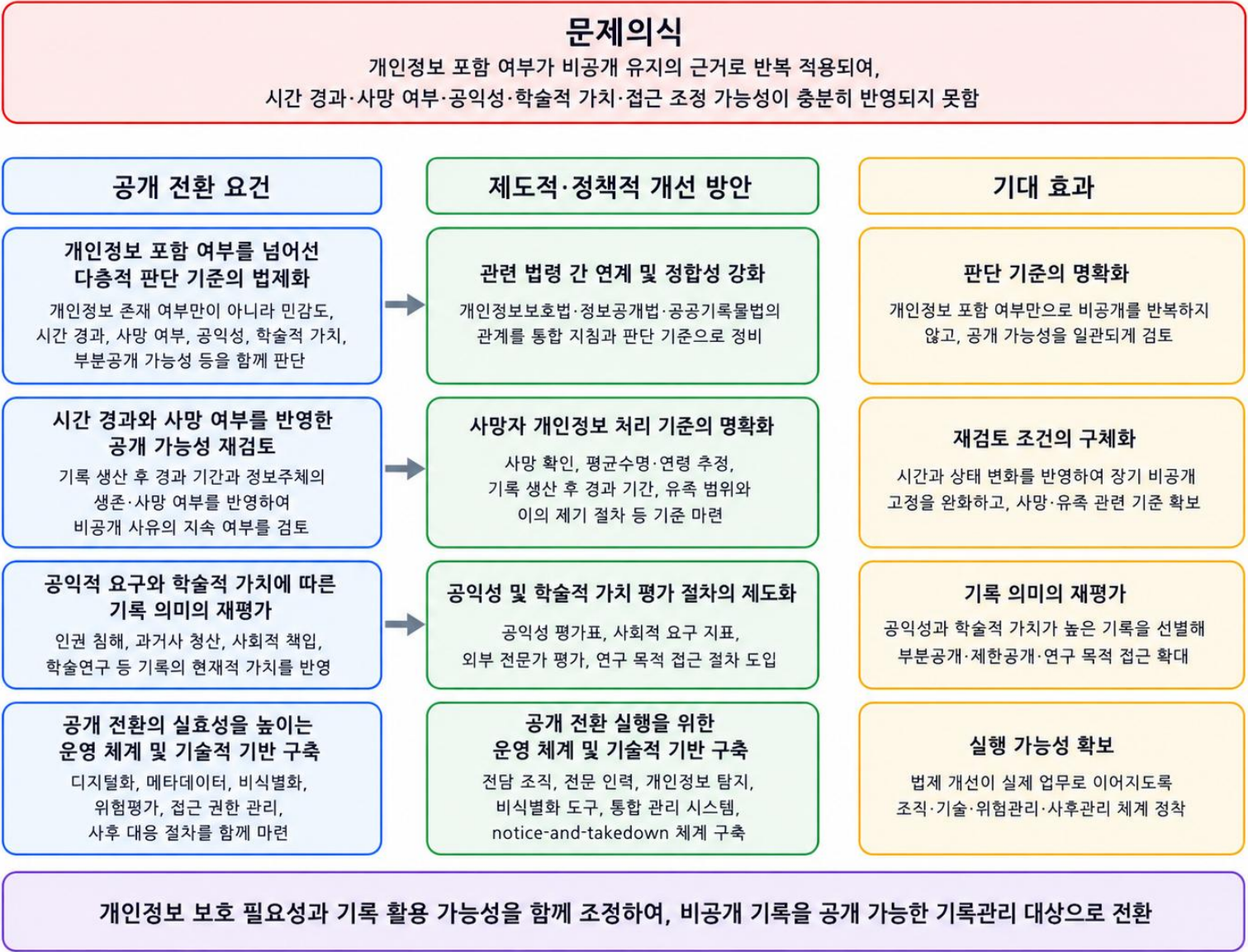
인권 침해, 과거사 청산, 사회적 책임, 학술연구 등 공익적 필요가 형성된 경우 기록의 의미와 공개 필요성을 재평가

4

운영 체계 및 기술적 기반 구축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구축, 비식별화, 위험평가, 접근 권한 관리, notice-and-takedown 등 기술적·운영적 기반 구축

09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안



09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안

① 관련 법령 간 연계 및 정합성 강화

1) 「공공기록물법」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재분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법률 또는 시행령, 지침 차원에서 개인정보 민감도, 식별 가능성, 제3자 정보 포함 여부, 시간 경과, 정보주체의 생존 여부, 사망 이후 경과 기간, 기록의 공익성, 학술적 가치, 부분공개 가능성, 제한적 접근 가능성 등을 공개재분류의 판단 요소로 명시

2)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의 적용 기준을 공개재분류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

- 하위 지침이나 해석 기준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이라도 공익적 필요, 학술연구 목적, 역사적 가치, 사망 여부, 비식별화 가능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나 제한적 접근을 검토하도록 명확히 해야 함

3)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록관리 영역의 관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 공개재분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망자 정보와 유족·제3자 권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역사적·학술적 활용 목적이 있는 경우 어떤 보호조치를 전제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

4) 세 법률을 연결하는 통합적 공개재분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재분류 심의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개재분류 심의 과정에 기록관리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또는 관련 분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09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안

② 사망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명확화

1) 사망자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생존자와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정보주체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재분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비공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적용하는 방식

2) 사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기대수명을 활용한 추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보 주체가 84세(2024년 평균 기대 수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90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사유가 없는 한 부분공개 또는 비식별화 공개를 우선 검토하며,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독일의 출생 후 100년 기준과 유사하게 공개 전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식

3) 출생연도나 사망연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록 생산 후 경과 기간을 대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독일 연방기록법은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록 생성 후 6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4) 사망자 정보 공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호주의 SLWA OHRRG 사례에서 활용된 notice-and-takedown 방식처럼, 공개 이후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기록의 접근을 임시 제한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공익성, 기록의 활용 가치 등을 다시 검토한 뒤 공개 유지, 추가 비식별화, 부분 제한, 비공개 전환 등을 결정하는 절차 마련

09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안

③ 공익성 및 학술적 가치 평가 절차의 제도화

1) 공개재분류 과정에 '공익성 평가'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해당 기록이 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되는지, ② 인권 침해·과거사·사회적 참사·부당한 행정작용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③ 공공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④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는지, ⑤ 사회적 피해 회복이나 권리구제에 필요한 자료인지 등을 공익성 평가 항목으로 설정

2) 공익성 평가를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 아니라 단계화된 평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공익성을 '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공개재분류 결과를 달리 검토하는 방식

3) 학술적 가치 평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① 기록의 희소성, ② 대체 자료의 존재 여부, ③ 특정 시기·사건·제도·집단을 설명하는 대표성, ④ 장기적 연구 가치, ⑤ 사회적 기억 형성에 대한 기여도, ⑥ 교육·전시·출판 등 2차 활용 가능성, ⑦ 기존 연구에서의 수요와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

4) 학술적 가치 평가는 기관 내부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 공개재분류 심의 과정에 기록관리 전문가뿐 아니라 해당 분야 연구자, 역사학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지역사 연구자 등을 참여 시키는 구조

5) 연구 목적 접근 제도를 공익성·학술적 가치 평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윤리 서약, 개인정보 재식별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인용·출판 시 비식별화 의무, 결과물 제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연구 목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

09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안

④ 운영 체계 및 기술적 기반 구축

1) 공개재분류 전담 조직 또는 전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는 공개재분류를 전담하거나 지원하는 조직 단위를 마련하고, 기관 기록관에는 공개재분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경험과 판단 기준을 축적

2) 공개재분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공개재분류는 기록관리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법률 해석, 역사적 가치 평가,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
- 공개재분류 담당자에게는 정기적인 전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3) 개인정보 탐지와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기술적 도구를 구축해야 한다.

- 시스템 차원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가족관계, 직업, 기관명, 지명 등 직접식별정보와 준식별정보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기능 필요

4) 공개재분류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유형, 공익성 평가 결과, 학술적 가치 평가 결과, 공개재분류 결정, 비식별화 처리 내역, 사후 이의제기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5) 공개재분류 결과와 판단 근거를 사례집으로 축적해야 한다.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한적 접근 결정마다 어떤 법적 근거와 판단 요소가 고려되었는지 기록

10 의의와 한계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연구 의의

-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을 독립적 연구 대상으로 설정
- ② 국내외 사례·법령 비교를 통해 공개 전환 요건 도출
- ③ 공개재분류를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활용 가능성을 조정하는 기록관리 과정으로 제시

한계 및 후속 연구

기관별 업무지침, 심의자료, 담당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개 전환 요건과 개선 방안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

결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공개재분류가 기존 비공개 판단을 반복하는 절차를 넘어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는 동적 기록관리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기록연구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문직 윤리상의 딜레마 연구

1. 연구 목적

현대 기록학은 과거 행정 효율성과 조직 중심 운영을 넘어, 기록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범적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으로 인해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폐기사로 전락해 버린 현실(임희연, 2018)에 직면해 있다. 기록관리의 중심이 단순 보존에서 이용자를 향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록전문가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요구되지만(양지원, 2022) 정작 전문직 윤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기성찰은 미진한 상황이다.

사회 전반의 윤리적 기록관리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나(김선교, 2020), 그전에 기록전문직이 지향해야 할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내부의 인식을 점검하는 윤리적 관점의 정립이 현재 국내 기록학계에 가장 시급한 학술적 과제일 것이다(이영남, 2016). 따라서 외부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기록전문직 스스로가 가치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타 전문직 분야에서는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국내 기록학계는 실무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갈등과 대응양상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 기록연구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의 구체적인 경험을 발굴하고, 기록연구사의 윤리적 딜레마 조정 및 대응 방식, 그리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전문직 윤리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장기적인 수련을 필수로 하고(김연경, 2013), 특정 영역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성이 극대화된 직업(설문원, 2025)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의무와 공공 봉사의 책임을 요구받는다. 즉, 사회는 전문직에게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며 이는 전문직 윤리의 토대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관료제적 특성으로 인해 다중적인 책임 구조에 직면한다. 행정 책임성은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성으로 분류되며 현장에서는 이들이 동시에 중첩되어 요구된다(주재현 외, 2015). 이러한 책임성의 충돌은 실무자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2.2 기록 전문직의 윤리적 가치

기록전문직의 윤리는 단순한 규범을 넘어 실무를 성찰하는 내재적 잣대이며(이소연, 2011), 학계와 국내외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설명책임성과 민주주의 가치 구현이다. 기록전문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설문원, 2025). 둘째, 기록의 보존과 진본성 및 무결성 유지이다. 이는 기록의 정치적 악용이나 왜곡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문가적 책임의 기초가 된다. 셋째, 아카이브 전환과 포스트모던 사조에 따른 사회정의 추구이다. 최근 기록학계는 아카이브가 권력과 기억이 교차하는 해석의 공간임을 자각하고(이경래, 2026), 소

외된 소수의 기록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능동적 '아키비즘(Archivism)'을 강조하고 있다(이현정, 2013).

결과적으로 현대 기록전문직 윤리는 제도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술적 관리자에서 벗어나, 접근성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판단 기준으로 재정의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윤리강령을 포함한 기록전문직 윤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기관 기록전문가가 현장에서 겪는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질적 면담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 분석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학계가 요구하는 기록전문직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도출하고, 특히 국내외 강령에 내재된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토픽 모델링(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록전문가 대상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공공기관 기록전문가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직 윤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실제 업무에서 나타나는 조정 및 대응 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나타나는 국내 기록전문가의 윤리 인식 현황과 실천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지향적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토픽 모델링

국내외 기록전문직 윤리강령에 내재된 핵심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Google의 Colab을 사용해 토픽 모델링(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ICA, SAA, ACA, ASA, ARA의 해외 윤리강령의 영어 원문을 수집하였고, 국내 강령으로는 기록인선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을 영어로 번역해 전문 수집하였다. 이는 두 언어로 분석 시 언어별로 토픽이 분류되는 시스템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데이터의 정제를 위해 파이썬(Python)의 영어 자연어 처리 툴킷(NLTK)을 관사, 전치사 등의 일반 불용어를 1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토픽 분류를 방해하는 기록관리 윤리강령의 특성상 조항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반복학습을 통해 추출하여 수동으로 추가 제거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텍스트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벡터화하는 CountVectorizer 함수를 적용해 문서-단어 행렬(DTM)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대규모 빅데이터가 아닌 소규모 데이터이므로, 기계적인 통계에 의존할 경우 과적합(Overfitting)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토픽 수(K)를 4개부터 8개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모델 학습을 반복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 토픽 내 단어들의 의미론적 판별 가해성(Semantic Interpretability)이 가장 높고, 주제 간 중복이 가장 적은 최적의 토픽 수인 K=6을 최종 선정하였다.

4. 분석결과

LDA 모델 분석 결과, 국내외 기록전문직 윤리강령의 핵심 구성 요소는 총 6개의 토픽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별 확률값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각 토픽의 의미론적 맥락과 상위 키워드를 바탕으로 명명한 6대 핵심 가치 요소는 (1) 가치(Value), (2) 법적 기준(Standards), (3) 접근(Access), (4) 권리(Right), (5) 이용자 존중(Respect, Users), (6) 책무/의무(Duty)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여한 각 토픽별 명칭과 기록학적 정의 및 맥락은 <표 2>와 같다.

<표 1> 토픽 별 상위 키워드 10개

토픽	단어(확률값)
Topic 1	value(12.99), preservation(10.30), principles(9.84), organizations(9.70), decisions(9.13), communities(8.85), individuals(8.83), research(8.61), activities(8.47), access(8.13)
Topic 2	standards(9.09), conduct(9.08), public(8.55), may(6.98), management(6.87), also(6.48), protect(6.36), behaviour(6.17), responsibilities(6.14), establish(6.14)
Topic 3	materials(20.66), work(15.37), access(10.43), public(8.24), holdings(8.17), understanding(6.82), may(6.52), seek(6.17), research(6.17), also(5.54)
Topic 4	individuals(19.66), documents(13.08), take(11.96), groups(10.66), work(10.48), public(9.40), rights(9.01), users(8.71), personal(8.48), access(8.21)
Topic 5	may(6.97), respect(6.58), users(5.94), personal(5.79), care(5.17), pressure(5.17), standards(5.17), available(5.01), interests(4.17), repository(4.07)
Topic 6	access(31.87), preservation(12.90), possible(10.93), including(10.79), restrictions(10.17), professionals(9.88), seek(8.17), individuals(7.78), management(7.47), duties(7.37)

<표 2> 핵심 키워드 및 토픽 명칭

토픽번호	토픽 명칭	핵심키워드	기록학적 맥락/정의
Topic 1	기록보존 가치와 공동체 책임	value , preservation, principles, organizations, communities	기록의 보존(preservation) 가치(value)와 원칙(principles)을 기반으로 조직(organizations)과 공동체(communities)에 대한 책임을 강조
Topic 2	공공 책임과 직무 수행 기준	standards , conduct, public, protect, responsibilities	공공(public)을 위한 직무 수행(conduct) 기준(standards)을 준수하고 기록을 보호(protect)해야 하는 책임(responsibilities)을 강조
Topic 3	기록 자료의 실무적 통제와 학술 연구 지원	materials, access , public, holdings, research	기록 자원(materials)과 소장자료(holdings)에 대한 공공(public) 및 학술 연구(research) 목적 활용 지원
Topic 4	정부주체의 기본권 존중과 프라이버시 보호	individuals, documents, rights , users, personal	이용자(users)의 접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록에 포함된 개인들(individuals)의 사생활(personal) 및 기본적 권리(rights) 보호
Topic 5	이용자 존중과 이해관계 조정	respect , users, personal, pressure, interests	이용자(users)의 다양한 이해관계(interests)를 존중(respect)하며 외부 압력(pressure) 속에서도 윤리적 판단을 유지
Topic 6	보존 및 기록 접근 제한의 조율	access, preservation, restrictions, professionals, duties	기록의 접근(access)과 제한(restrictions), 보존(preservation)을 전문직(professionals)의 책임(duties) 아래 관리

5. 결론 및 후속연구 제안

위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가지 윤리 강령의 주요 가치는 학계와 규범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기록전문직의 표준적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범적 가치들이 실제 공공기관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직무 환경 속 어떤 딜레마가 유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의 생생한 경험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출된 6대 윤리 가치 요소를 분석 프레임워크로 기초 삼아, 현직 공공기관 기록연구사들의 윤리 인식과 구체적인 딜레마 상황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조정 및 대응 방안을 탐색하는 질적 면담 단계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6. 참고문헌

- 임희연 (2018).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기록학연구, 58, 31 - 63.
- 양지연. (202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요구분석 : 기록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김선교. (2020). 아키비스트 윤리강령에 대한 윤리론적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서울
- 이영남. (2016).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기록학연구, 50, 5-60.
- 김연경. (2013). 기록관리직의 전문직 윤리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설문원. (2025). 기록전문직의 핵심 가치로서 설명책임의 통제구조. 기록학연구, 85, 127-170.
- 주재현, 한승주. (2015). 공무원의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3), 1-33.
- 이소연. (2011). 기록관리와 전문성 -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113-138.
- 이경래. (2026). 동시대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표상과 윤리의 확장. 기록학연구, 87, 113-148.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사용자 주도형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PDA) 구축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A Study on the Practical Approaches to Build User-Led Personal Digital Archiving

이예은(Ye-Eun Lee)¹, 오효정(Hyo-Jung Oh)²

E-mail: ¹yenny@jbnu.ac.kr, ²ohj@jbnu.ac.kr



1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6.5.00
최초심사 2026.5.00
게재확정 2026.5.00

ORCID

Ye-eun Lee
<https://orcid.org/0009-0000-5853-0352>

Hyo-Jung Oh
<https://orcid.org/0000-0001-8067-2832>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연구는 상용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나 정책 변화로부터 개인의 기록을 보호하고, 기록 생산자가 데이터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형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PDA)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이용자가 네이버와 같은 외부 서비스를 기록의 주요 생산 및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데이터 통제권의 부재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플랫폼의 편의성을 수용하면서도 핵심 기록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독립적 저장 체계로 통합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상용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PDA만의 필수 관리 항목을 정의하고, 사용자 의도를 시스템 기능으로 전환하는 지능형 도구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직접 아카이빙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적 경로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단순한 이용자를 넘어 기록 관리의 실질적 주체로서 데이터 소유권을 기술적으로 방어하고, 지속 가능한 기록 보존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practical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user-driven Personal Digital Archiving (PDA) to protect individual records from the service terminations or policy shifts of commercial platforms, ensuring that creators can fully exercise their data sovereignty. While many users currently rely on external services like Naver for record production and storage, such dependence inherently limits their control over their own data.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is research proposes a strategy that integrates the convenience of existing platforms with an independent storage system where individuals manage their core records directly. Specifically, this study defines essential management parameters unique to PDA—distinct from commercial platforms—and investigates methodological pathways that allow non-experts to design their own archiving environments using intelligent tools that translate user intent into system functions. Ultimately,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roadmap for individuals to transcend the role of mere consumers and become proactive stewards of their records, enabling them to technically defend data ownership and realiz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long-term digital preservation.

Keywords: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정원, 로컬 퍼스트, 데이터 주권, 생애 서사
Personal Digital Archiving, Digital Garden, Local-first, Data Sovereignty, Life Narrative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SNS를 통해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며, 이는 정체성 형성과 생애사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기억 자산이 된다. 이러한 개인 디지털 기록물을 능동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장기 보존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Personal Digital Archiving, 이하 PDA)’이라 정의한다(Marshall, 2008a).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상용 플랫폼에 의존하는 위탁형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정책 변화나 플랫폼 종료 시 데이터 유실과 접근 제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Marshall, 2008b). 따라서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기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PDA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Marshall(2008a)이 언급한 수동적 기록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고도화된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의 지능형 개발 방법론에 주목한다. 이 기술은 코딩 숙련도가 낮은 일반 사용자도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용 플랫폼을 직접 기획 및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플랫폼 기업에 귀속되었던 기록 관리의 주도권을 개인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데이터 주권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누적되는 ‘디지털 정원(Digital Garden)’ 철학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생애 서사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형 개인 기록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PDA)의 개념

PDA는 개인이 생산·수집한 디지털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관리·보존하는 활동과 체계를 의미하며, 기록의 선별·분류·활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agrie(2005)는 개인이 이메일, 문서, 이미지, 영상 등 자신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축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개인 디지털 컬렉션(personal digital collection)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후 Marshall et al.(2006)과 Marshall(2008a)의 이용자 연구를 통해 개인 디지털 기록의 저장·선별·분류·장기보존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지면서 PDA는 점차 독립적인 연구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2.2 PDA 플랫폼 국내외 동향

국내의 경우 네이버(Naver)¹⁾와 카카오(Kakao)²⁾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 블로그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기록 관리 기능을 강화한 ‘기록집’ 모델로 개편되는 등 일상 기록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이정민, 2025).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의존적 구조는 기업의 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른 기록의 지속성 결여와 데이터 통제권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외부 서버가 아닌 사용자 기기에 원본 데이터를 우선 저장하는 ‘로컬 퍼스트(Local-first)’ 방식(Kleppmann et al., 2019) 및 오픈소스 기반 아카이빙 모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모델은 기록 생산자가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인 기록 관리와 장기 보존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위탁형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1) <https://campaign.naver.com/lifelogblog/>

2) <https://www.kakaocorp.com/page/service/service/KakaoStory>

3. 사용자 주도형 PDA 설계 요건 및 개념 모델

3.1 상용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와 사용자 주도형 PDA 설계 요건

국내 상용 플랫폼은 개인 기록의 장기적 보존보다는 실시간 공유, 콘텐츠 소비 촉진, 상업적 수익 창출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조를 지닌다. 이로 인해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도출된다. 첫째, 기업의 정책 변경 또는 사업 전략 수정 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가변적으로 바뀌어 기록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Marshall, 2008b). 둘째, 시간 순 중심의 선형적 스트림(Stream) 구조는 생애 서사를 맥락적으로 축적하고 연결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셋째, 플랫폼 중심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체계는 기록자의 주관적 맥락이나 감정적 가치를 담아내기 어렵다(Caulfield, 2015; Appleton, 2020).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주도형 PDA의 핵심 요건을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으로 구분하여, 필수 요건은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난 데이터 주권과 구조적 독립성 확보를, 선택 요건은 기록의 서사화와 사용자 맞춤형 경험 제공을 각각 지향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사용자 주도형 PDA 플랫폼 핵심 요구사항 명세

구분	요구사항 명칭	세부 내용	비고
필수 요건 (구조/ 보존)	①로컬 퍼스트 아키텍처	특정 클라우드 종속 없이, 사용자 기기 및 개방형 웹에 원본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저장하여 플랫폼 서비스 종료에 대비함	장기 보존성 확보
	②지능형 메타데이터 자동 파싱	사용자의 수동 분류를 탈피하고, LLM 기반 지능형 도구를 통해 날짜·장소·등장인물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태깅함	검색 가능성 및 무결성 확보
선택 요건 (시각/ 서사)	③주관적 감정 시각화(이모지 매핑)	객관적 텍스트를 넘어, 특정 생애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이모지 및 색상으로 변환하여 매핑함	기록의 서사화
	④타임라인/지식 그래프 UI	분산된 기록을 일방향 목록이 아닌, 감정의 흐름이 담긴 타임라인이나 개인 지식 그래프 형태의 맞춤형 UI로 렌더링함	맞춤형 UX 제공

필수 요건은 ①특정 클라우드나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 기기에 원본 데이터를 자체 저장하여 장기 보존성을 확보하는 로컬 퍼스트 아키텍처를 구축한다(Kleppmann et al., 2019). ②기존의 수동적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 LLM이 날짜·장소·등장인물 등의 속성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태깅하여 기록의 검색 가능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한다. 선택 요건은 ③생애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이모지(Emoji) 및 색상으로 변환·매핑하는 주관적 감정 시각화 기능을 도입하여 기록의 서사화를 유도한다. ④분산된 기록 간의 맥락적 연결을 위해 타임라인 또는 개인 지식 그래프(Personal Knowledge Graph) 형태의 UI를 구현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경험(UX)을 제공한다(Balog, 2021). 이러한 구분은 데이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구조적 필수 기능과 사용자 경험 확장을 위한 선택 기능을 구별하기 위한 설계 기준에 따른 것이다.

3.2 사용자 주도형 PDA 개념 모델 및 기술 아키텍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주도형 PDA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같은 LLM 기반의 개발 환경을 활용, 사용자의 자연어 기반 기록 입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LLM과의 대화를 통해 기록의 맥락과 의미를

서술하며, 시스템은 이를 날짜, 장소, 인물, 감정 등의 의미 단위로 자동 구조화하여 로컬 저장소에 저장한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기록의 분류 및 연결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기존 수동적 아카이빙 방식에서 발생하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록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개방형 정적 웹(Static Web)과 PWA(Progressive Web App)를 기반으로 하여 브라우저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를 가진다.

기술 아키텍처는 저장 계층, 지능 처리 계층, 표현 계층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저장 계층은 IndexedDB와 OPFS(Origin Private File System)를 활용하여 사용자 기기 내에서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저장·관리되도록 설계되며 외부 서버 의존성을 최소화한다(Mozilla Developer Network, 2025). 지능 처리 계층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반 의미 분석을 통해 서술형 기록에서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로 변환한다(Jurafsky & Martin, 2023). 표현 계층에서는 감정 시각화 및 기록 탐색 기능을 제공하며, 분석 결과를 이모지와 색상으로 매핑하고 D3.js, Cytoscape.js 등의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여 타임라인 또는 개인 지식 그래프 형태로 구현한다(Bostock et al., 2011; Franz et al., 2016). 또한 이러한 구조는 별도의 전문 개발 지식 없이도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개발 및 구성 환경을 지향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상용 플랫폼 중심의 기록 관리 구조가 개인 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데이터 주권 확보에 한계를 가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형 PDA 모델의 개념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어 기반 LLM 도구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플랫폼 의존적 기록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기록 구조를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기록 관리의 주도권이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 개인 중심 구조로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본 연구는 실제 구현 이전 단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설계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구동 가능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와 실증적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모델의 활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네이버. (n.d.). 나만의 기록집. <https://campaign.naver.com/lifelogblog/>
- 류한조. (2021). 개인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이용한 개인서사 구성 연구. *기록학연구*, 67, 237-266. <https://doi.org/10.20923/kjas.2021.67.237>
- 이정민. (2025). '기록으로 연결되는 공간' 네이버 블로그, 오픈 22주년 맞아 새 방향성 공개. 파이낸셜포스트.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79>
- 최유리, 임진희. (2016).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 '나의 아카이브(My Archive)' 만들기. *기록학연구*, 47, 5-49.
- 카카오. (n.d.). 카카오스토리. <https://www.kakaocorp.com/page/service/service/KakaoStory>
- Appleton, M. (2020). A brief history & ethos of the digital garden. <https://maggieappleton.com/garden-history>
- Balog, K. (2021). Personal Knowledge Graphs. *Foundations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13(4-5), 273-541. <https://doi.org/10.1561/15000000081>
- Beagrie, N. (2005).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Personal digital libraries and collections. *D-Lib Magazine*, 11(6). <https://doi.org/10.1045/june2005-beagrie>
- Bostock, M., Ogievetsky, V., & Heer, J. (2011). D3: Data-Driven Documents.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17(12), 2301-2309.
- Caulfield, M. (2015). The garden and the stream: A technopastoral. Keynote presented at dLRN Conference, Stanford, CA. <https://hapgood.us/2015/10/17/the-garden-and-the-stream-a-technopastoral/>
- Franz, M., Lopes, C. T., Huck, G., Dong, Y., Sumer, O., & Bader, G. D. (2016). Cytoscape.js: a graph theory library for visualisation and analysis. *Bioinformatics*, 32(2), 309-311.
- Jurafsky, D., & Martin, J. H. (2023).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3rd ed.). Pearson.
- Kleppmann, M., Wiggins, A., van Hardenberg, P., & McGranaghan, M. (2019). Local-first software: You own your data, in spite of the cloud. *Proceedings of the 2019 ACM SIGPL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w Ideas, New Paradigms, and Reflections on Programming and Software (Onward! 2019)*, 154-178. <https://doi.org/10.1145/3359591.3359737>
- Marshall, C. C., Bly, S., & Brun-Cottan, F. (2006). The long term fate of our digital belongings: Toward a service model for personal archives. *Proceedings of IS&T Archiving 2006*, 25-30. <https://doi.org/10.2352/issn.2168-3204.2006.3.1.art00007>
- Marshall, C. C. (2008a). Rethinking personal digital archiving, Part 1: Four challenges from the field. *D-Lib Magazine*, 14(3/4). <https://doi.org/10.1045/march2008-marshall-pt1>
- Marshall, C. C. (2008b). Rethinking personal digital archiving, Part 2: Implications for services, applications, and institutions. *D-Lib Magazine*, 14(3/4). <https://doi.org/10.1045/march2008-marshall-pt2>
- Mozilla Developer Network. (2025). IndexedDB API. Retrieved from <https://developer.mozilla.org/>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e, Yu Ri and YIM JIN HEE. (2016). A Study on Management of Personal Archives : How to Make My Archiv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7, 5-49.
- Kakao. (n.d.). KakaoStory. <https://www.kakaocorp.com/page/service/service/KakaoStory>
- Lee, Jungmin (2025). 'A Space Connected by Records' Naver Blog Unveils New Direction on 22nd Anniversary. *Financial Post*.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79>
- Naver. (n.d.). Naver life log blog. <https://campaign.naver.com/lifelogblog/>
- Ryu hanjo. (2021).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sonal Life Narrative Using Personal Mem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7, 237-266.

지역 아카이빙 수업 참여자의 정동적 경험에 관한 연구

2026. 5. 29.(금)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발표자: 김지훈

| INDEX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2. 이론적 배경

2.1 정동이론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3.2 자료수집 및 분석

3.3 면담지

4. 연구결과

4.1 사회적 영향

4.2 인식론적 영향

4.3 존재론적 영향

5. 결론

6.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기록 생산의 주체와 범위 확장

국가기관중심 공공기록 개인·지역·공동체의 기록 실천 확대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지역 아카이빙 수업 운영

수업 참여자는 지역, 주민, 수업 공동체 등과 다양한 관계 형성

이러한 관계 형성은 정동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음.(범영우·김미혜, 2023)

기존 연구는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시민기록활동 실천 사례 중심

기록학에서 정동 개념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지역 아카이빙 수업 참여자들의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정동적 경험을 형성하는지 분석

향후 참여자들이 기록전문가·시민 기록활동가·이용자로서 아카이브를 대하는 태도와 실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2.1 정동이론

스피노자(Spinoza)

정동 개념의 토대

정동(Affect)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시키는 변용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

정동은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의 내적 감정 표현(X)
관계 속에서 생성·이동하는 힘과 강도의 변화(O)

사회적으로 명명되고 범주화된 감정(Emotion)과 달리
정동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등 존재들 사이에서 흐르며
관계 맺음을 통해 질적 변화**를 일으킴(범영우·김미혜, 2023).

정동은 **신체와 세계 사이에 의식적·비의식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이해(Cifor, 2016, 10; 이경래, 202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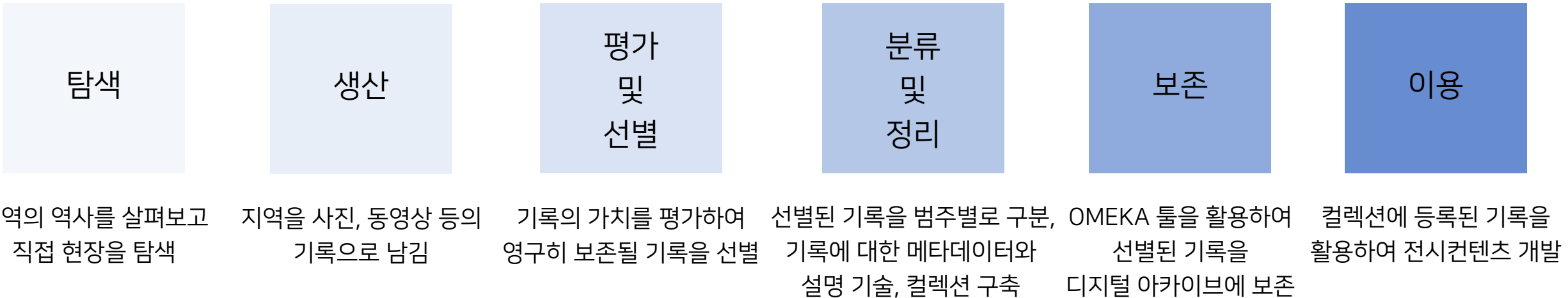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지역 아카이빙 수업 개요

-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학부 수업
- 2019년 H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성곽길문화예술거리조성 사업의 '지역연계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

기록관리 절차에 기반한 수업과정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연구 대상

- 가장 최근에 진행된 프로젝트인 2025년 수업을 대상으로 함
- 2025년 수업 참여자 19명 중 응답을 희망한 10명과 면담 진행

<표 1> H대 아카이빙 프로젝트 결과물(2019~2025)

	연도	아카이빙 대상	기록(건)				컬렉션(건)	전시 콘텐츠(건)	수업 참여자(명)
			동영상	문서	사진	음성			
아카이빙 프로젝트	2019	성곽마을(삼선 3구역)	25	1	4,539	9	10	9	32
	2020	한성마을(삼선 5구역)	33	-	1,305	-	6	5	29
	2021	성북천	38	-	2,155	4	8	8	25
	2022	한성대캠퍼스	4	-	1,357	-	8	9	29
	2024	창신동	16	3	661	8	7	8	33
	2025	삼선동	-	-	615	1	5	6	19
	합계			10,774				44	45

3.1 연구설계

Assess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A Toolkit (UCLA Community Archives Lab, 2018)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적 경험에 관한 툴킷 (UCLA, 2018)

- 공동체 아카이브가 구성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
- 공동체 구성원이 아카이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와 자기·공동체·세계에 대한 인식을 정동적 영향의 근거로 봄

시민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에 대한 연구 (배은희, 2025)

- UCLA의 툴킷과 Brophy의 영향 수준 모델을 바탕으로 시민 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을 분석하는 모형 개발
- 시민 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 분석과 기록활동가로서 당사자-되기 과정 도출
- 시민 기록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 인식의 변화, 존재의 변화와 당사자 되기 과정을 정동적 영향의 근거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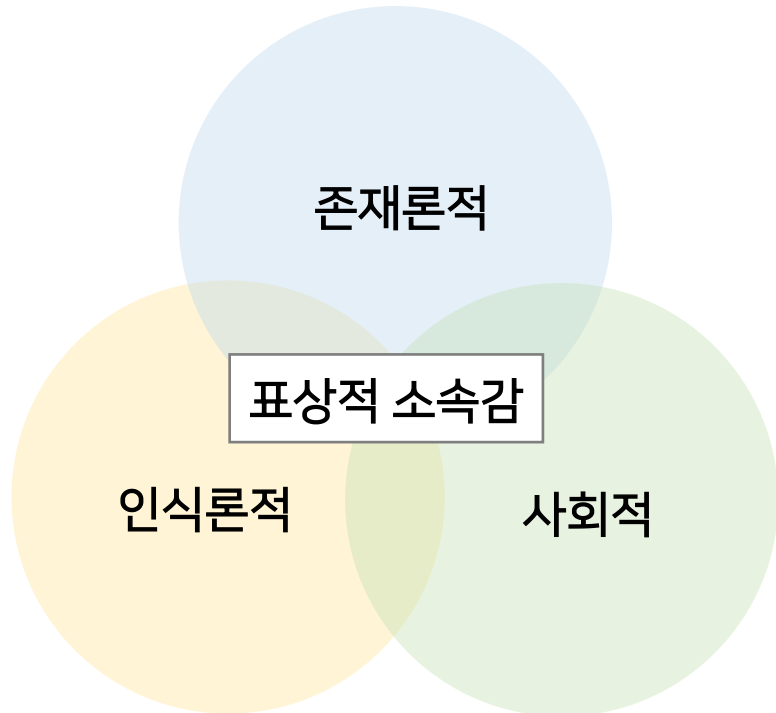
두 모델을 참고하되 본 연구의 대상이 지역 아카이빙 수업 참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업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여 설계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UCLA(2018)의 정동적 영향 평가 툴킷 분석 모델

<그림 1> 상징적 소멸에 대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UCLA, 2018)



존재론적 영향: "I am here."

기록활동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

인식론적 영향: "We were here."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

사회적 영향: "We belong here."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표상적 소속감(Representational Belon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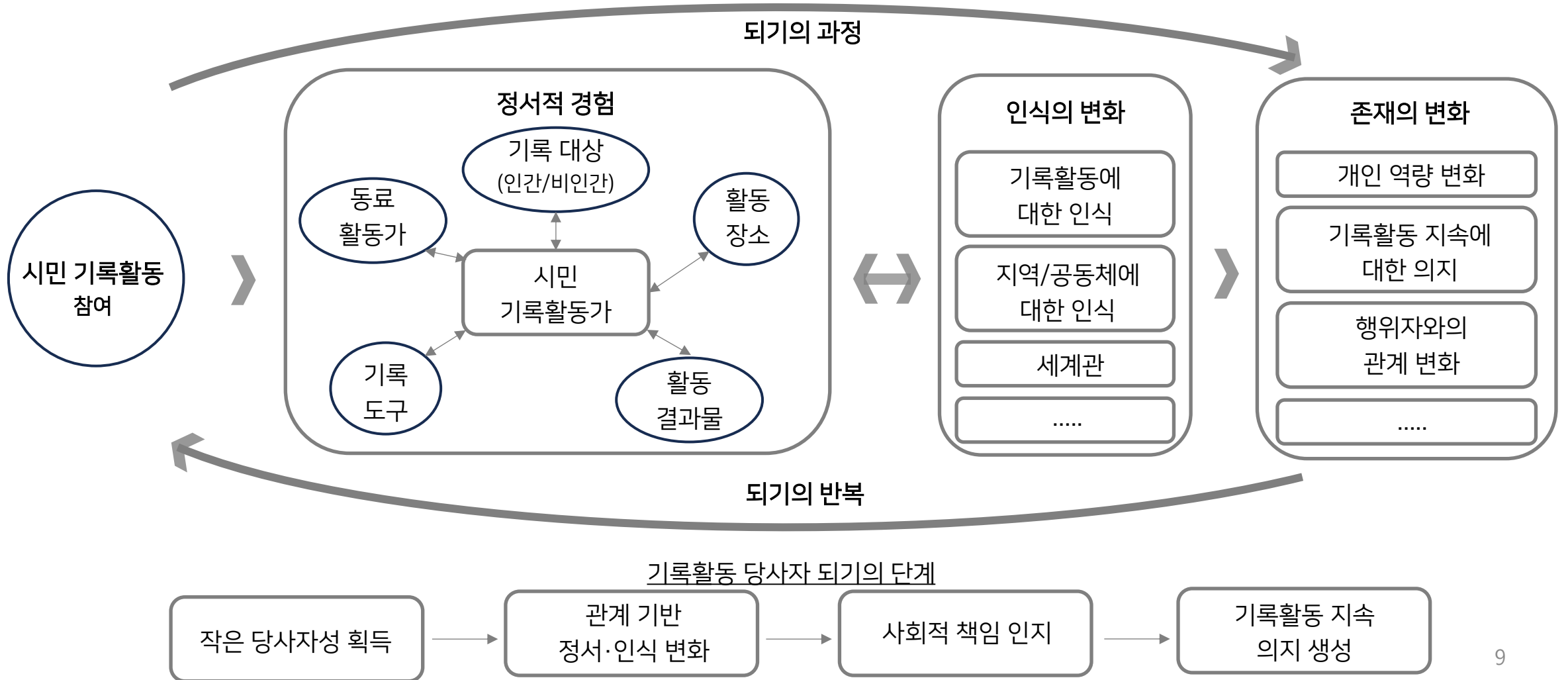
자신의 존재를 복합적이고 의미있으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립 그 존재를 규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을 획득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배은희(2025)의 정동적 경험 분석 모델

<그림 2> 시민 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 분석 모델 (배은희, 2025)



3.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정동적 경험 분석 모델

사회적 영향: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수업 공동체, 지역 주민, 공간 등과 관계 맺음을 경험하고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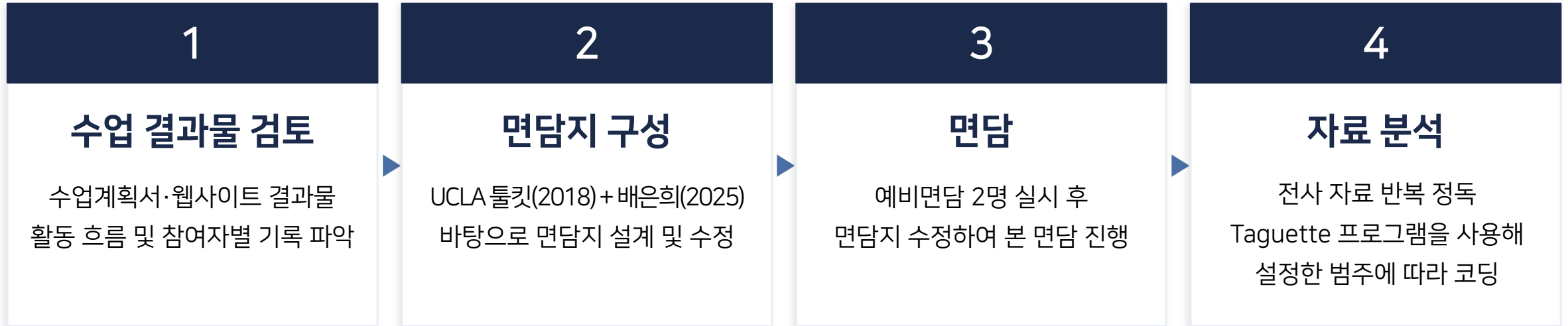
인식론적 영향: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관찰

존재론적 영향: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기록 실천까지 이어졌는지 관찰

3.2 자료수집 및 분석



3. 연구방법

3.3 면담지

범주	본 연구	출처
배경 정보	수업을 수강하게 된 계기	UCLA(2018), 배은희(2025)
	수업 전 기록 활동을 해본 경험	배은희(2025)
	삼선동에 대해 원래 갖고있던 생각	
기록활동에의 내용에 대한 질문	프로젝트에서 했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UCLA(2018), 배은희(2025)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UCLA(2018), 배은희(2025)
정동적 경험에 대한 질문	활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관찰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지점	
	팀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생각의 변화	
	아카이빙 후 지역에 대한 생각의 변화	배은희(2025)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점	배은희(2025)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장소, 이야기 등이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지점	UCLA(2018), 배은희(2025)
	수업 후 기록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기록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의 변화	UCLA(2018), 배은희(2025)
	지역이나 주변의 기록에 대한 관심의 변화	배은희(2025)
	수업이 끝난 후 진행 중인 기록 활동	
마무리	묻지 않은 내용 중 이야기하고 싶은 것	UCLA(2018), 배은희(2025)

4. 연구결과

4.1 사회적 영향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수업 공동체, 지역 주민, 공간 등과 관계 맺음과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관찰

범주	세부	발화	면담자
사회적 영향	수업 공동체	팀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활동하면서 바뀜	A
		매주 같이 활동하면서 어색한 사이에서 편한 사이가 됨	B
		다른 수업과 달리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함	C
		인원이 적어 팀원보다 교수님과의 교류가 잦았음	E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각자의 시야가 달랐음을 확인함	F
		사진을 찍기 위해 아파트 경비분께 양해를 구하고 옥상에 들어감	A
	지역 주민	주민들이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표함	B
		지역 주민의 생활 반경과 거주 모습이 궁금해짐	C
		지역 주민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고 상인과 인터뷰를 진행함	D
		주택에 대한 호기심이 주민에 대한 호기심까지 이어짐	E
		상인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정이 변화함	F

- 팀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완화되거나 수업 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등 수업 공동체 내부에서 관계가 변화함
- 지역 주민과는 직접적으로 인터뷰, 촬영 허가 요청 등의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거나 간접적이지만 주민에 대한 호기심이 형성되는 등 관계맺음의 가능성도 확인됨
-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공동체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과 여러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음

4. 연구결과

4.2 인식론적 영향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관찰

범주	세부	발화	면담자
인식론적 영향	지역 관심도	집 주변 지역의 역사에 관심이 생김	A
		과제로 인한 타 지역 방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록이 궁금해짐	B
		이전 프로젝트들을 보며 지금은 없어진 장소가 궁금해짐	C
		추후에 시간을 내서 지역의 보지 못했던 장소들을 방문하고자 함	D
		흥미로웠던 주택을 다시 방문해보고 싶어함	E
		지나쳤던 장소에 다시 방문하고 평소 가지 않는 새로운 길도 고려하게 됨	F
	지역 인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됨	A
		그저 학교 거리에서 활동 후 내가 삼선동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B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됨	C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애정이 생김	D
		거리가 익숙해지고 더 친근하게 생각이 바뀌게 됨	E
		공사장으로 떠오르던 모습에서 자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됨	F

- 지역에 대한 역사나 상호작용이 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등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지역의 이야기와 생활을 떠올리게 되고 지역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는 등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함
- **지역을 단순한 생활공간으로 보기보다 관심 장소를 관찰하거나 방문하고 의미와 맥락을 지닌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줌**

4. 연구결과

4.3 존재론적 영향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기록 실천까지 이어졌는지 관찰

범주	세부	발화	면담자
존재론적 영향	기록 정체성	이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됨, 기록관리학 대학원 진학을 고려함.	A
		과제로 인한 타 지역 방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록이 궁금해짐	B
		기록을 통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됨	C
		일상 아카이빙과 기록 선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D
		이전보다 기록을 더 하고자 하게 됨	E
		기록의 가치와 재생산을 고려하게 됨	F
	기록 실천	지역 아카이브 주민 기록단에 참여함	B
		일상 사진을 더 자주 촬영함	C
		SNS 업로드 과정에서 선별을 진행함	D
		집 주변 아카이빙을 찾아봤으나 연령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함	E
		집 주변 지역 맛집 아카이빙 블로그 활동에 참여함	F

- 기록의 가치와 대상 선별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등 기록 정체성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수업 이후에서도 지역 아카이빙 활동을 지속하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기록을 공유하는 등 기록 실천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역 아카이빙 수업은 참여자에게 기록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넘어 수업 이후 기록 실천까지 촉발할 수 있음을 나타냄**

5. 결론

지역 아카이빙 수업 참여자에게서 **사회적 영향, 인식론적 영향, 존재론적 영향의 정동적 변화가 확인됨.**

사회적 영향 차원에서는 **수업 공동체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경험**이 접촉·호기심·교류의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됨.

인식론적 영향 차원에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이야기-변화-소속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식의 확장**이 관찰됨.

존재론적 영향 차원에서는 기록의 가치·대상·선별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는 등 **기록 정체성이 형성·강화**되었으며,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수업 이후 **후속 기록 실천으로 이어지는 양상**도 확인됨.

이는 **교육 기반 아카이빙 활동이 기록 태도, 지역 이해,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본 연구는 **정동적 영향 분석**틀을 교육 기반 지역 아카이빙 수업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향후에는 **동료 연구자 검토**와 **연구 참여자 검토**를 진행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할 예정임.

6. 참고문헌

- 강진숙. (2014).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10(3), 195-221.
- 김예림. (2020). 음악을 활용한 미술수업 사례 연구: 정동(affect) 개념을 중심으로. 『미술과 교육』, 21(4), 23-43.
- 연효숙 (2015). 들뢰즈에서 정동의 논리와 공명의 잠재력. 시대와 철학, 26(4), 187-217.
- 이경래. (2022). 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4, 5-43.
- 범영우, 김미혜. (2023). 학교 지리에서 '정동'에 기반한 글쓰기 수업의 설계와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125-145.
- 배은희. (2025). 시민 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대환, 김익한. (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기록학연구』, 59, 277-320.
- 장유정. (2023). 예술로 지역 기록하기.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수영. (2015).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커뮤니케이션 이론』, 11(4), 38-76.
- Gregg, M., & Seigworth, G. J. (2015). 『정동 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서울: 갈무리.
- Massumi, B. (2018). 『정동정치』. 서울: 갈무리.
- Caswell, Michelle, Marika Cifor, and Mario H. Ramirez. (2016). "‘To Suddenly Discover Yourself Existing’: Uncover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79, 56-81.
- Caswell, Michelle, Alda Allina Migoni, Noah Geraci, and Marika Cifor. (2016). "‘To Be Able to Imagine Otherwise’: Community Archives and the Importance of Representation." *Archives and Records*, 38(1), 1-20.
- Cvetkovich, A. (2003). "An Archive of Feelings: Trauma, Sexuality, and Lesbian Public Cultur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Kuecker, Elliott, Callie Beattie, Penny Bee, Madeline Conley, Simone Gillespie, Sophie Hollis, Alona Norwood, Cassilyn Ostrander, Hannah Southern, Margaret Steitz, and Lingyu Wang. (2024). "Teaching Community Archiving." *Archivaria*, 97, 10-44.
- Lee, Jamie A. (2016). "Be/longing in the Archival Body: Eros and the 'Endearing' Value of Material Lives." *Archival Science*, 16, 33-51.
- UCLA Community Archive Lab. (2018). "Assess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A Toolkit".
- 한성대 아카이빙 프로젝트. (2026. 5. 25.). URL: <https://hsarchives.org/s/intro/page/intro>

감사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기록화 방안 연구

목차

01	연구배경 및 목적	04	사례분석
02	선행연구	05	향후 연구 계획
03	이론적 배경	06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록학 담론 확장

- 기억의 기록화 담론 등장
 - 국내 기록학계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로 지칭) 활동을 계기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장됨 (이경래, 2015)
- ‘기록실천주의(Archival Activism)’ 등장
 - 기록전문가 역할은 가치중립적 보관자를 넘어 사회적 변화에 참여하는 존재로 논의됨 (이현정, 2014; 이경래, 2015)
- ‘회복적 기억’과 ‘기억과정’ 이 등장: 사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공동체 참여 및 사회적 기억 형성을 중시하는 논의 (이현정, 2014)
-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록화 필요성 확대됨 (이경래, 2015)

■ 형제복지원 사건

-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강제수용·불법감금·강제노역·폭행 등이 발생한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 (소제원, 2023)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특별법 제정, 국가배상 판결 등을 통해 국가 책임과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인됨
- 피해자 구술기록과 사건 조사자료 등 기록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기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탐색과 활용에 한계 존재 (설문원, 2021)
-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사건기록화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 연구목적: 형제복지원 사건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기록화 전력 및 실행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2. 선행연구

■ 형제복지원 사건 & 사건기록화 선행연구

	연구	선행연구 분석
사건기록화 개념 & 방법론 연구	• 윤은하 & 김유승(2016) 송주형(2015) 박진경·김유승(2017)	- 사건 기록이 피해자의 기억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짐
특정 사건기록화 연구	• 안병우(2015) 송민정(2016) 고나경(2019) • 이경래 & 이광석(2017) 조유정(2019) 김유승 & 유반디(2015) • 신동희, & 김유승(2016) 이상민(2016)	- 다양한 사건(세월호, L코믹스사건, 용산참사,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사건 기록의 수집 전략, 도큐멘테이션 전략, 참여형 기록화, 대항 기억 기록화 등 연구가 이루어짐
형제복지원 사건 연구	• 신권철(2014) 유혜정(2018) 박숙경(2023) 김일환(2019)	-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국가 책임, 피해 경험, 수용 구조 등을 중심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형제복지원 사건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
- 기록학 분야에서도 여러 사건을 대상으로 기록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
-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상으로 한 기록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적합한 기록화 방안 연구가 필요함

3. 이론적 배경 1) 사건기록화 개념

■ 사건 :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국립국어원, 2026)

■ 기록화 개념

연구자	정의 및 주요 특성
안병우(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는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여 기록을 수집·생산하고, 기록 수집 전략의 수립과 조정·평가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다. - 또한 다양한 주체가 생산한 기록을 수집·보존·활용함으로써 기록의 총체성과 기록관리의 중립성·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경래·이광석(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는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예술가,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사건의 기억을 생산·수집·공유·활용하는 과정이다. - 전시, 사진집, 다큐멘터리, 구술 기록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 생산과 활용 과정을 사건 기록화의 범위로 본다.
임지훈·오효정·김수정(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기록이 다양한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생산되며, 사건 아카이브는 이를 사건 중심으로 수집·관리해야한다.
임지훈·오효정·윤은하(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기록은 다양한 해석과 맥락을 포함하며, 여러 주체의 경험과 기억을 함께 기록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회적 맥락을 보존해야 한다.

▶ 사건기록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생산한 기록을 사건 중심으로 생산·수집·관리·활용함으로써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맥락을 보존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3. 이론적배경 2) 사건기록화 특성

• 사건기록화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사건기록화 개념화에서 언급한 '생산·수집·관리·활용' 기준으로 전략을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함

생산

- 다중 기록 주체
- 피해자 참여

수집

- 구술 채록
- 온라인 기록 수집
- 능동적 수집
- 협력 네트워크

관리

- 다양한 기록유형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
- 기록공백 보완

활용

- 진상규명
- 사회적 기억 형성
- 교육·추모·치유
- 인권회복 및 재발방지

3. 이론적배경 3) 형제복지원 사건 개요 및 기록 현황

형제복지원 사건 개요 (신권철, 2014; 유혜정, 2018; 소제인, 2023)	기록 현황 분석 목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5~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강제수용·폭행·강제노역·사망 등 발생• 1989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 사건 축소·은폐• 2012년 이후 피해자자 중심 진상규명 운동 전개•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공식 인정• 이후 국가·부산시 배상 책임 판결 진행• 2025년 과거사위원회 조사 종료 및 피해자 643명 공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분석: 사건 기록 생산 흐름을 분석하여 현황 파악- 2차 분석: 언급된 분석 자료를 구체적 파악• 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 기사, 방송 프로그램, 과거사위원회 조사 기록을 분석함- 언론 기사: 부산일보 기사 보도를 중심- 방송 프로그램: MBC·KBS·SBS·JTBC·tvN 방송사 프로그램 중심- 과거사위원회 조사 기록: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해당 매체 및 플랫폼 별 '형제복지원'을 키워드를 검색하여 분석함

3. 이론적배경 3) 형제복지원 사건 개요 및 기록 현황

■ 언론 기사

시기	건수
1980~1990년대	251건
2000년대	15건
2010년대	206건
2020년대	263건

부산일보 웹사이트 (검색:2026.4.30)

■ 방송 프로그램

시기	건수
1980~1990년대	0건
2000년대	0건
2010년대	9건
2020년대	12건

MBC·KBS·SBS·JTBC·tvN 웹사이트 (검색:2026.4.30)

■ 과거사위원회 조사 기록

날짜	문서명
2022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 진실규명 결정서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결정1 관련 참고자료
2023년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2) 진실규명 결정서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II) 진실규명 결정 보도자료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환영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확인 및 상봉 사례 공개 보도자료
2024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III) 진실규명 결정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3) 진실규명 결정 보도자료
2025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4) 진실규명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6) 진실규명 보도자료

과거사위원회 웹사이트 (검색:2026.4.30)

- 형제복지원 사건 기록은 피해자 증언과 진상규명 과정 중심으로 기록이 생산되었음
- 기록 생산 주체가 다양하고 기록이 분산되어 있어, 기록 탐색·접근의 어려움 및 활용 한계가 있음
 - 사회적 기억형성과 사건의 맥락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사건기록화 방안이 필요함

4. 사례분석

• 사례분석 대상: 국내외 사회적 기억 형성과 관련된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사건기록화가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

01 제주4·3사건

- 국가폭력에 의해 다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과 공론화 진행
- 특별법 제정 및 정부 진상조사 수행
- 구술 기록, 조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속

02 노근리 사건

-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 1999년 AP통신 보도로 공론화
-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 진행
- 구술, 추모기록, 평화기념관 중심 기록화 지속

03 5.18 민주화 운동

- 신군부에 맞선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사건
- 시민·언론·종교계를 중심으로 기록 생산
- 공공기록·구술·영상기록 통합 관리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록관 운영

04 호주 빼앗긴 세대 (Stolen Generations)

- 원주민 아동 강제 분리·수용 정책 사건
- 피해자 증언과 공동체 기록 중심 기록화
- 공동체 아카이브 및 디지털 기록 구축
- 화해 정책 및 교육·연구 활용 지속

05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 원주민 아동 강제 동화 정책 사건
- 캐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 중심 진상규명 및 기록 수집
- 증언·정부·교회 기록 통합 관리
- 디지털 아카이브 및 교육 활용 지속

06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 인종분리 정책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 사진·영상 중심 대항기억 기록화 진행
- 박물관·전시·아카이브 구축
- 민주주의·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

5. 향후 연구 방향

01 국내외 사건기록화 사례 분석

- 이론적 배경 바탕으로 도출한 기록화 전략 특성을 기준으로 사례 분석
 - ▶ 벤치마킹 요소 파악 및 심층면담 질문 구성

02 면담 진행

- 면담 목적: 형제복지원 사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기록 관리의 현황·문제점·향후 관리 방안 분석
 - 면담 대상
 - 부산시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형제복지원 사건 지원 담당 직원 2인
 - 인권운동단체 '진실의 힘' 관계자 2인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인
 - 면담 내용: 기록 생산 및 관리 현황 조사, 기록관리 인식 파악, 기록관리 문제점 및 향후 관리 방안
-

■ 학술논문

- 고나경. (2019).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2.
- 김성희. (2019). 근현대 사진기록의 기록학적 가치인식 및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245 - 261.
- 김유승, & 류반디. (201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 - 194.
- 김일환. (2019). 복지는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가: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로 본 형제복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19(1).
- 박숙경. (2023). 해결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의 고통: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복합 PTSD. 심리운동연구, 9(3).
- 박정옥, & 이명규. (2013).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2).
- 소제인. (2023). 형제복지원 사건의 억울한 사연들. 고시계, 68(9), 152 - 153.
- 송민정. (2016). 4·16 참사 기록물 수집의 특징과 의미: 4·16기억저장소의 기록수집활동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3).
- 신권철. (2014).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3(1).
- 신동희, &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 안병우. (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44, 39 - 78.
- 윤은하, & 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 - 79.
- 유혜정. (2018). 부랑인 수용소와 사회적 고통: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학적 연구. 기억과 전망, 39, 387 - 436.
- 이상민. (2016).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전략. 기록학연구, 48.
- 이경래. (2014).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 이경래, &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 - 77.
- 이정연. (2025).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아카이브 실천의 가능성 탐색.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20(20), 69 - 104.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 임지훈, 오효정, & 김수정. (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연구.
- 임지훈, 오효정, & 김수정. (2019). 사건 아카이브의 특성에 대한 고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 장대환, & 김익한. (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기록학연구, 59.
- 조유정. (2019). 제주4·3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 4·3과 역사, 19.
- 주윤정. (2025). 캐나다의 진실화해위원회와 원주민 회복적 정의의 성과와 한계.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JGA), 9(1).

■ 문헌자료

- 설문원. (2021). 기록학의 지평. 조은글터.
- 제6차 진실규명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 웹사이트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JTBC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KBS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MBC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SBS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tvN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건.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네이버 지식백과: 4·16 세월호 참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제주 4·3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노근리평화기념관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부산일보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제주4·3평화재단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웹사이트. 검색일: 2026년 4월 30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형제복지원.

기록의 이용가능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분류체계 유형에 따른 모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
윤소정

01

기록의 이용가능성,
접근인가? 구조인가?

이용가능성 \neq 접근 여부
구조에 의해 형성



그렇다면 이용가능성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분류체계는 이용가능성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1 분류체계는 어떠한 구성 논리를 갖는가?
- 2 3축 연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3 이용가능성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03

어떻게 분석하였는가?

분석 대상



ARCO

다장르
분류 원칙 혼재

AAA

시각예술
창작자 중심 분류 원칙

BnF

다장르
공연 사건 · 납본제도

분석 틀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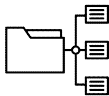


검색도구



이용자서비스

비교 기준



분류논리의 일관성



계층 구조의 확립



3축 연계의 통합성













04

어떤 차이가 발견되었는가?



이용가능성



비교 기준	분류 논리 	계층 구조 	3축 연계 
사례 A			
사례 B			
사례 C			



Finding Aid

05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은 무엇인가?



원칙 분산형



계층 미확립형

← Finding Ai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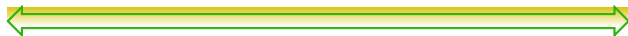
사건 맥락 중심 일관형



생산자 중심 일관형



이용가능성



미수립

낮음·제한적

수립

부분·완전 실현



Finding Aid의 수립 여부가 핵심 분기점

06

본 연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용가능성은 구조에 의해 형성 → Finding Aid



: 다양한 기록물 대상으로 적용 가능



참고문헌

- 김지아(2002). 예술기록에 관한 분류기술 사례 연구: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4, 79-117
- 설문원(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3-43.
- 설문원(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설문원(202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조민지(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기술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Bowker, G. C., & Star, S. L. (1999). *Sorting things out: Classification and its consequences*. MIT Press.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2nd ed.)*.
- Pearce-Moses, R.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Yakel, E. (2003).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3(1), 1-25.
- Yakel, E. (2004).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Are finding aids boundary spanners or barriers for user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2(1-2), 63-77.
- Yakel, E., & Torres, D. A. (2003). AI: Archival intelligence and user expertise. *American Archivist*, 66(1), 51-78.

지역 구술기록의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멀티모달 콘텐츠 설계

Digital Storytelling of Local Oral Histories and Multimodal Content Design

박진영(Jinyoung Park)¹, 오효정(Hyo-Jung Oh)²

E-mail: 50520jin@jbnu.ac.kr, ohj@jbnu.ac.kr



1 제1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4.1.15
최초심사 2024.1.15
게재확정 2024.1.15

ORCID

Jinyoung Park
<https://orcid.org/0009-0009-2499-5851>

Hyo-Jung Oh
<https://orcid.org/0000-0001-8067-2832>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발간 등록번호: 00-00000000-000000-00)

초 록

본 연구는 지역 구술기록을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의 멀티모달 콘텐츠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데이터 구조화 설계 방안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구술기록은 주민의 경험, 장소 기억, 공동체 관계를 담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과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술 원음, 전사문, 사진, 관련 자료 등이 개별적으로 제시될 경우 이용자가 이야기 흐름과 자료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 자료를 생산·활용 맥락에 따라 구술 데이터와 AI 생성 데이터로 구분하고, 제시 형태와 활용 기능을 기준으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위치정보, 외부정보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멀티모달 콘텐츠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의 기초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data structuring design as a preliminary stage for developing local oral history records into multimodal content based on digital storytelling. Local oral history records contain residents' experiences, memories of places, and community relationships, and thus can be used as content resources for understanding local placeness and everyday culture. However, when oral recordings, transcripts, photographs, and related materials are presented individually, users may face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narrative flow of oral history record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ials. Accordingly, this study classifies the constituent materials into oral history data and AI-generated data according to their production and utilization contexts. It also organizes them into five data types—text, audio, image, location information, and external information—based on their presentation forms and functional roles.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proposes a foundational data structure that can be used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multimodal content.

Keywords: 지역 구술기록, 디지털 스토리텔링, 멀티모달 콘텐츠, 데이터 구조화, AI 생성 데이터
Local Oral History Records, Digital Storytelling, Multimodal Content, Data Structuring, AI-generated Data

1. 서론

지역을 이해하는 일은 남겨진 기록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장소와 사건을 기억하는지 살피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 기록화 사업과 마을 아카이빙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의 경험, 생활사, 장소 기억을 담은 구술기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지역 구술기록은 공식기록에서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운 개인과 공동체 기억을 포함하며, 지역의 장소성, 생활문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재영·정연경, 2018).

그러나 구술기록은 구술 원음, 전사문, 사진 등 다양한 자료 유형으로 구성되며(손동유·권용찬, 2013; 박혜준, 2019), 그 내용 역시 인물, 장소, 사건, 시간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김해인·정연경, 2022).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해졌지만, 자료 간 관계가 구조화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구술기록의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기록화 사업으로 수집된 구술기록을 대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멀티모달 콘텐츠 구축을 위한 데이터 구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콘텐츠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구술기록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이 현재의 언어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이다(김해인·정연경, 2022). 이 기록은 구술 내용뿐 아니라 구술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와 관련 자료가 함께 맥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재성, 2019; 박혜준, 2019). 지역 구술기록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맥락이 주민의 경험, 장소 기억, 공동체 관계가 결합된 이야기의 형태로 드러난다(이경남, 2024). 이 점에서 지역 구술기록은 스토리텔링의 기초 자원이 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 특정한 스토리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행위라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자료를 활용해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선주, 2021).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활용 방식이 멀티모달 접근이다. 멀티모달 접근은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단일 자료 유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맥락과 의미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박라미 외, 202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 구술기록을 활용하여 멀티모달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의 복합적 맥락과 다양한 자료 유형을 콘텐츠 구성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구조화 관점이 요구된다.

3. 멀티모달 콘텐츠를 위한 데이터 구조화

본 장에서는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를 데이터 구조화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료의 생산·활용 맥락을 바탕으로 성격을 구분한 뒤, 멀티모달 콘텐츠 안에서의 제시 형태와 활용 기능을 중심으로 데이터 유형을 정리한다.

3.1 구술기록 구성 자료의 성격과 역할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는 생산·활용 맥락에 따라 원자료, 연관자료, 파생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 채록과 정리 과정에서 직접 생산된 원자료와 구술 맥락을 보완하는 연관자료를 구술 데이터로 설정한다. 구술 데이터는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을 전달하는 중심 자료이며, 구술 내용을 지역의 장소·사건·공동체 기억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근거 자료로 기능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이해와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구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조 자료를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 자료에는 보조 텍스트, 생성 이미지, 음성 안내, 증강현실 지도 시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은 자료의 생성과 변환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AI 기술을 통해 산출된 파생 자료를 AI 생성 데이터로 설정하며, 이는 원자료를 대체하기보다 구술 데이터의 접근성과 이해를 보완하는 자료로 본다.

3.2 지역 구술기록의 데이터 유형별 구조화

멀티모달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는 자료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형태와 활용 기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 형태를 자료가 콘텐츠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활용 기능을 각 자료가 이야기 흐름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위치정보, 외부정보의 다섯 가지 데이터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텍스트와 음성은 구술자의 경험과 발화 맥락을 전달하고, 이미지는 장소와 사건의 시각적 맥락을 보완한다. 위치정보는 구술 내용의 공간적 배경과 장소 맥락을 제시하며, 외부정보는 개인의 구술을 지역사 기록 및 공적 기록의 맥락과 연결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의 성격과 데이터 유형에 따른 구성 자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 구술기록 구성 자료의 성격과 데이터 유형

자료의 성격 데이터 유형	구술 데이터		AI 생성 데이터
	원자료	연관자료	파생 자료
텍스트(Text)	전사문, 구술 해제문 구술 요약문	구술 관련 문헌 지역사 자료	서사 재구성 보조 시나리오
음성(Audio)	구술자의 인터뷰 원음	발화 구간 정보 관련 음성 자료	AI 음성 합성 보조 자료
이미지(Image)	구술자 인터뷰 사진	관련 장소 및 사건 사진	프롬프트 기반 생성 이미지
위치정보(GIS)	장소 지시 정보	GPS 좌표, 지도 정보 지명 정보	AR 지도 시안
외부정보 (Source)	해당 없음	구술 관련 뉴스, 공적 기록 외부 아카이브 링크	외부정보 기반 요약 설명문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 구술기록을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멀티모달 콘텐츠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 설계 단계로서 데이터 구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를 생산·활용 맥락에 따라 구술 데이터와 AI 생성 데이터로 구분하고, 멀티모달 콘텐츠 안에서 제시될 형태를 기준으로 데이터 유형을 텍스트, 음성, 이미지, 위치정보, 외부정보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스토리텔링 구성과 향후 멀티모달 콘텐츠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의 기초를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 구술기록 사례에 적용하여 구조화 방식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자료 간 연결 기준과 멀티모달 콘텐츠 구현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재성. (2019). 구술 기록에서 비언어적 행위 재현의 문제: 4.16구술증언록의 사례. *구술사연구*, 10(1), 77-105.
- 김군도, 이진성, 박진영, & 오효정. (2025). 구술자료 기록화를 위한 지능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4), 109-131.
- 김해인, & 정연경. (2022). 구술 기록의 활용을 위한 패킷 기반 주제명표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해방촌 니트 사업 구술 기록을 대상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67-85.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067>
- 박라미, 유진, 최유리, & 오효정. (2025). AI를 활용한 멀티모달 분석 기반 디자인 언어 이해: 가우디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6(5), 1161-1169. <https://doi.org/10.9728/dcs.2025.26.5.1161>
- 박혜준. (2019). 구술기록의 엔티티 관계분석에 의한 구술기록관리시스템 제안사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손동유, & 권용찬. (2013). 체계적인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제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35-158.
- 이경남. (2024).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3), 105-129.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3.105>
- 이재영, 정연경. (2018).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5-47.
- Sun Joo Chung. "Digital Multimodal Storytelling: Understanding Learner Perceptions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3), 174-18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Jae-sung (2019). Issues in representing nonverbal acts in oral records: A case study of the 4.16 oral testimony collection. *Oral History Studies*, 10(1), 77-105.
- Kim, Gun-do, Lee, Jin-sung, Park, Jin-young, & Oh, Hyo-jung (2025). A study on an intelligent approach to documenting oral history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4), 109-131.
- Kim, Hae-in, & Chung, Yeon-kyoung (2022). A study on developing facet-based subject headings for the use of oral history records: Focusing on oral history records of the Haebangchon knitwear indust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4), 67-85.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067>
- Park, Ra-mi, Yoo, Jin, Choi, Yu-ri, & Oh, Hyo-jung (2025). Understanding design language based on AI-driven multimodal analysis: Focusing on Gaudí architectur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6(5), 1161-1169. <https://doi.org/10.9728/dcs.2025.26.5.1161>
- Park, Hye-jun (2019). A study on suggestions for an or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entity relationship analysis of oral record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Sohn, Dong-yu, & Kwon, Yong-chan (2013). Suggestions for systematic production of or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135-158.
- Lee, Kyung-nam (2024). A study on developing archival contents for urban sustainabi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3), 105-129.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3.105>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18).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oral history in Korea: Focusing on academic journal artic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25-47.

기록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 자기계발서를 중심으로 -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Record Experience:
Focusing on Self-Help Books

발표자: 이호영 (hoyoung4713@naver.com)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

목차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과정
3. 연구 결과
4. 종합 논의 및 의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기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 분야 외에도 많은 곳에서 '기록'이라는 용어 사용 ↑

일기

메모

사진

영상

스케줄러

블로그

SNS

✓ 연구 필요성

-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록'과 기록학에서 정의하는 '기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 기록학에서 논의해온 기록의 범주가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록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록'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연구 범위 및 선행연구

✓ 기록의 의미

증거 정보 기억

정체성 공동체

+ a

- ◆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의미를 특정한 하나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음

✓ 개인, 일상기록

- 개인기록의 특성 분석, 수집 전략
- 일상 아카이브로의 전환 촉구
- 개인기록 구축 방법
- 생애서사 기반으로 개인 기록화

⋮

- ◆ 본 연구에서는 수집 및 관리 방안이나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보다는 '경험' 그 자체에 집중

✓ 행위로 바라보기

기존
명사
개념

업무 행위의 결과물

보존·관리의 대상

기록물관리기관

- ◆ 본 연구에서는 기록을 명사 개념 뿐만 아니라, 동사의 개념으로도 바라봄

연구 설계

연구목적	기록학을 전공하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기록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록이 어떤 의미로 경험되는지 탐색	
연구질문	(중심) 그들은 기록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경험하는가?	(하위) 그들은 기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위) 그들은 제도적 의무나 외부의 요구가 없음에도 왜 꾸준히 기록을 지속하는가?	(하위) 그들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가?
기대효과	대중이 생각하는 기록의 의미를 해석하여 기록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논의 확장	
조사대상	기록 관련 자기개발서(일반인이 자신만의 기록 경험과 노하우를 드러내고 있는 서적) 11권	
연구방법	질적연구 (현상학)	
방법론	디켈만의 해석 현상학적 분석 방법 적용	

해석학적 현상학이란?

✓ 현상학이란?

- 현상학: 세계가 어떻게 의식적 행위를 통해 구성되고 경험되는지 기술하는 학문(Husserl)
-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철학적 전통이자 질적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 현상에 얽힌 본질적 구조를 밝히려는 접근
 - 특정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기에 적합

ex) 학술대회 발표 당시 긴장 상황



자연과학적 접근

- 왜 긴장하는가?
- 불안 반응, 심박수 증가, 스트레스 반응

→ 인과관계·법칙 규명

VS

현상학적 접근

- 발표 직전의 긴장은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
-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고, 타인의 시선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현상이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주어지는지 탐구

✓ 해석학적 현상학

- Heidegger의 해석학적 현상학 : 후설의 전통을 계승하지만 '해석'에 초점

Husserl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본질 파악



Heidegger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질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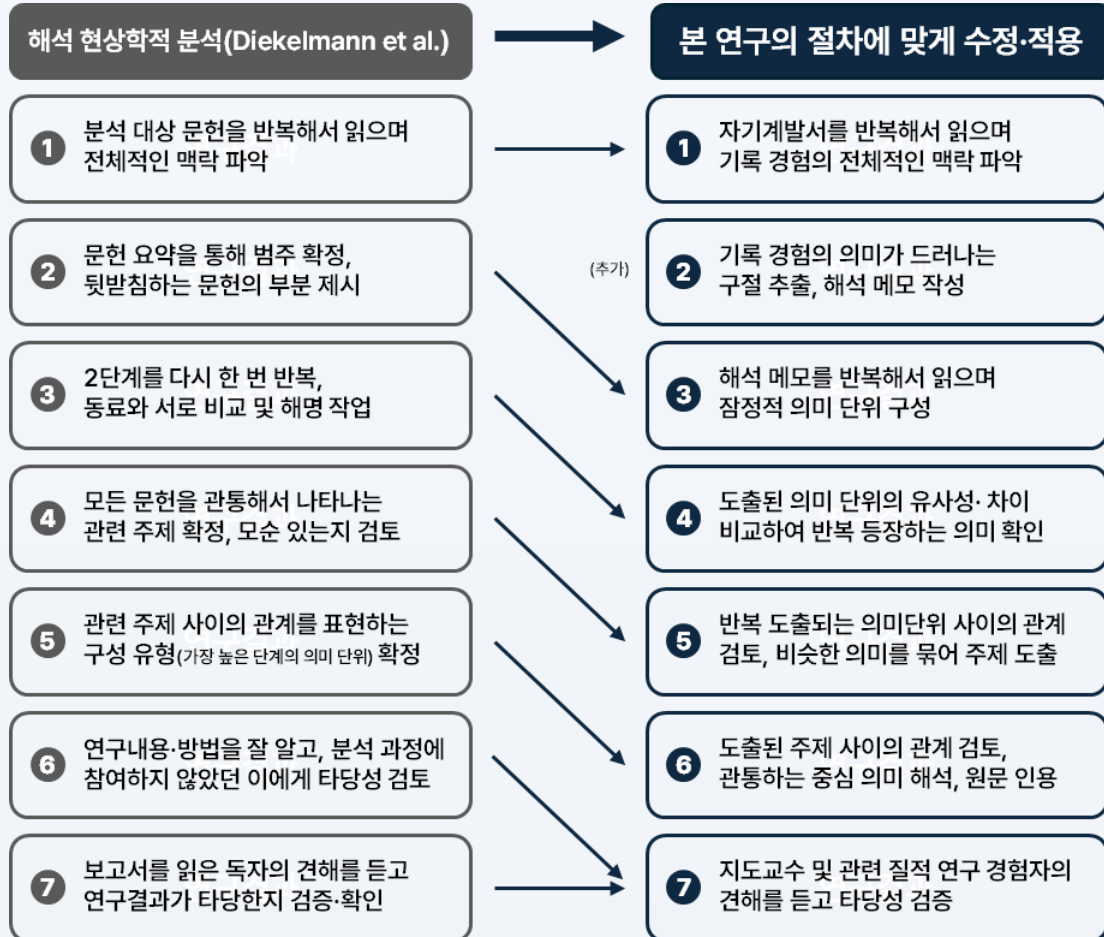
자기계발서 활용

✓ 연구대상

-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관련 정보나 내용을 담은 책
- **자료 수집 용이**
이미 출판의 형태로 공표된 것,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
-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 표집**
총 11권의 책 선정, 24명의 기록 경험 수집·분석



해석 과정



✓ 해석 현상학적 분석

-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토대로 제시된 Diekemann의 해석 현상학 분석 방법 채택
- 7단계를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선이해 드러내기

전체 맥락 파악

의미 메모 작성

반복 읽기

중심 의미 도출

타당성 검증

연구 결과

해석 결과, 16개의 의미 도출, 4개의 본질적 주제 구성

✓ 자기 대면

기록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다시 만남

✓ 일상의 발견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일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

기록
경험

✓ 삶의 길잡이

쌍인 기록에서
변화와 삶의 방향을 가늠함

✓ 관계의 확장

기록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관계를 새롭게 이해함



중심 의미 도출

연구 결과

자기 대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감
	솔직한 감정을 직면하고 터놓음
	또 다른 나를 마주함

일상의 발견	일상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충만히 누리
	흐르는 순간을 붙잡고 다시 떠올림
	나에게 맞춘 단단한 일상을 선물함
	앞으로의 날들이 기다려짐

삶의 길잡이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줌
	매일 깨닫고 배우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함
	기록을 다시 펼쳐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음

관계의 확장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눔
	애정을 담아 따뜻한 마음을 전함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대와 대화할 수 있게 됨
	함께 기록하기 시작,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를 격려함

종합 논의 및 의의

✓ 기록의 의미

기록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질문 던짐



논의의 차원을 확장하는 시도
(기록의 의미와 범주에 관한 논의 확장)

✓ 의의

- **비전문 영역의 기록 경험 조명**
기록학 전문담론 바깥에서 사람들이 기록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살펴봄
- **행위와 경험 관점에서 기록 해석**
기록을 관리 대상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라보며 그 자체를 해석하고 삶을 조율하는 실천 과정으로 바라봄

✓ 한계

- **분석 자료의 범위 제한**
자기계발서 특성상 긍정적 경험 위주의 서술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간접 분석의 한계**
이미 구성된 텍스트를 분석했기에 추가 질문을 통한 궁금증 확장 어려움
후속연구에서 더 다양한 자료 활용 필요

참고문헌

- Brothman, Brien.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48-80.
- Diekelmann, N. L., Allen, D. G., & Tanner, C. A. (1989). The NLN criteria for appraisal of baccalaureate programs: A critical hermeneutic analysis.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Dowling, M. (2007). From Husserl to van Manen. A review of different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1), 131-14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Wilk, N. C. (2005). The lived experience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Walking between two worlds.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Yeo, Geoffrey. (2007). Concepts of Record (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0(2), 315-343.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김은진. (2015). "소진을 보고하는 미술치료사의 미술관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한조. (2021). 개인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이용한 개인서사 구성 연구. 『기록학연구』, 67, 237-266.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5-46.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 오승진. (201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간호사로서의 체험: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이계희. (2019). "미술치료사의 그림일기 체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이영남. (2020). 일상생활과 기록. 『기록학연구』, 63, 167-225.
- 이호신. (2015). 사서 교육 지원 동기에 관한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20집, 55-97.
- 장대환, 김익한. (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기록학연구』, 59, 277-320.
- 최효진, 임진희. (2015). 개인 일기의 연구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6, 95-152.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유리. (2025). 『질적 연구 이해: 논문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서울: 박영story.
- Creswell, John W.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Jimerson, Randall C.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록유산의 통합 관리 방안 연구: 내방가사를 중심으로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김한울

목 차

1. 서론
 - 1.1. 문제의 정의
 - 1.2. 연구의 필요성
 - 1.3.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2. 이론적 배경
 - 2.1.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
 - 2.2. 문화유산의 통합 관리 체계
 3. 연구방법과 범위
 4. 결론
 5. 참고문헌
-

1. 서론

1.1. 문제의 정의

유네스코(UNESCO)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역사적·학문적·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1972)에 정의된 초기의 보호 대상은 생물학적·지질학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동물 및 생물의 자생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자연유산과 기념물, 건축물, 회화, 유적지 등의 유형 문화유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1995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행하여 기록유산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여 공동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지식, 기술, 문화적 표현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진 ‘세계의 기억(MOW)’ 사업은 세계 각국의 공동체 집단적 기억과 문화 정체성이 담긴 기록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존·보호하기 위해 목록화를 시작하였다(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 발행년불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기록 및 매개체를 기술적으로 보존하고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정보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기록관리 분야의 연구 동향이 보존·복원에서 활용과 서비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빙과 전자 기록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정희명, 김순희, 2024).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관리 역시 보호·전승에 그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자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산업적·경제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말부터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공간정보(GIS) 시스템, 원형 기록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유산청, 2019). 다만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자원의 양이 방대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흩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박희진, 2019; 이은영, 2019; 한희정, 2016).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인 보존·복원을 넘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국가유산청(발행년불명)은 기록유산을 공동체의 집단 기억이자 선조들의 사상, 발견, 지혜 및 성과 등이 축적된 인류 문명의 진화 기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록유산의 범위는 문자로 기록된 것부터 그림이나 기호로 기록된 비문자 자료, 오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자료까지 포함한다(국가유산청, 발행년불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유네스코는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중 인류 문명에 게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하여 목록화하고 기술적 보존과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의 기억(MOW)’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이처럼 인류의 문화 정체성과 발전 역사가 담겨 있는 기록유산은 후대를 위한 복원·보존이 필수적이며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교육·관광·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큰 정보자원이다.

기록유산의 한 갈래인 한국 고전문학은 당대의 생활상과 사회 모습, 언어 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1차 문헌 자료이다. 그중에서도 내방가사는 한문 중심의 남성 기록 문화와 다른 시각으로 한글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담긴 역사적 기록이다. 양반 사대부 중심의 한자 문화에서 당시 여성은 문자와 기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지만,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언문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주체적인 문화를 향유하였다(류명옥, 2023). 이처럼 여성이 기록의 주체가 되는 일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MOWCAP)에 등재되었으며, 현재는 국제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한겨레, 2025).

내방가사에 대한 학술 연구는 주로 인문학적 해석이나 여성학적 가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고찰하는 기록관리 측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이정옥, 2019). 내방가사는 구술·필사의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창작자와 필사자가 불분명한 채 가문과 지역 공동체 단위로 향유되어 온 기록물로, 구비문학적 특징으로 인해 원본의 파악과 보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립경국대학교, 2015). 내방가사는 작자와 연대가 불확실하고 이본 관계가 복잡하여 가사의 원형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향유층의 고령화로 인해 낭송법도 점

차 사라지고 있다(김윤희 외, 2020). 두루마리 형태의 내방가사가 6,000여 필을 넘는다는 추론이 존재하지만, 체계적 관리와 발굴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계에서조차도 원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이정옥, 2019). 이러한 유동적 전송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나 문화유산과 동일한 틀이 아닌, 기록물의 향유 맥락과 필사자, 가문 등 다양한 요소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방가사만의 새로운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내방가사는 총 567점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이 관리 중인 292점,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중인 226점을 포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가사문학관, 예천박물관 등이 보유한 작품이 공동으로 제출되었다(경북일보, 2025).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대상 기록물임에도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표준화되지 않은 분절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기존의 보호·전송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확산하는 정보의 이용·재이용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처럼 개별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이용자의 접근과 활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박희진, 2019). 이러한 분절적 체계는 정보자원에 대한 검색을 어렵게 하고 연구자들의 학술 논의 활성화를 저해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 다수의 접근권과 향유를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문화자산인 내방가사를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1.3.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기록유산, 그중에서도 내방가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를 충분히 반영하는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와 이를 위한 체계적 통합 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방가사는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배경으로 생산되었지만, 동시에 내용적으로 보편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지니고 있어 교육·문화산업 등에서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인문학적 자원이다. 그러나 구술·필사의 방식으로 전송되어 가문과 지역 공동체 단위로 향유되어 왔다는 구비문학적 특징으로 인해 원본의 관리와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국립경국대학교, 2015). 국립경국대학교(2015)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 지원사업’으로 경북 지역의 내방가사를 조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이용활성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지역성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한국국학진흥원(292점)과 국립한글박물관(226점)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관 및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대상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내방가사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 보유 기관의 기록 관리 체계 및 서비스 현황을 비교하고 내방가사와 유사한 자료적 특성을 가진 기록의 통합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내방가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소와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적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으로서의 내방가사가 가진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도모하고,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보자원의 활발한 이용/재이용을 확장하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 ◎ 주요 내방가사 보유 기관의 관리 체계 표준화 현황은 어떠한가?
- ◎ 내방가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

내방가사는 여성들이 한글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한 가사 문학으로, 단순한 문학 장르를 넘어 당대 여성의 현실과 정서를 담은 역사적 기록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2022년 등재된 내방가사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회를 기록한 희귀한 1차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내방가사에 담긴 혼인, 출산, 시집살이, 가족 관계, 이별, 사별 등의 내용은 기존의 남성 중심 사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며, 이는 여성사·가족사·생활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기능한다. 여성들은 자전적 술회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고 성찰하였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삶과 애환을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를 향유하였다(김윤희 외, 2020). 특히 당시 양반 사대부 중심의 한자 문화에서 여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기록하는 문화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은 한국 문학사와 여성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류명옥, 2023). 내방가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료가 아니라 현대까지 창작과 향유가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전통 문학 장르이다(국립경국대학교, 2015). 자신들의 언어로 삶의 흔적을 기록하고 서로 공감하는 여성들의 문화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방가사는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계녀가류, 신변탄식류, 화전가 및 유람가류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정옥, 2019). 초기의 내방가사는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유교적 소양과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문의 여성들끼리 삶의 애환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써 향유되었다(이정옥, 2019). 그러나 격변의

시기였던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겪으며 점차 망명, 유학, 여행 등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이 주제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고순희, 2019). 내방가사는 구술·필사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이본이 존재하며, 주요한 형태는 두루마리와 장책으로 제작되었다(김윤희 외, 2020). 전승 방식으로 인해서 유사한 작품이 반복생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개인의 지역성과 사용하는 어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각자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들의 기록 문화이다(고순희, 2019). 그러므로 내방가사는 단순한 고전 작품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문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적 가치를 가진 기록유산으로 인정되며,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내방가사가 가진 자료적 특성은 그 관리의 어려움과 직결된다. 내방가사는 즉흥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이 강하며, 구술과 필사의 방식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소멸로 단절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한희정 외, 2016). 또한 창작자와 필사자가 불분명하고 가문과 지역 공동체 단위로 향유되어 온 구비문학적 특징으로 인해,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나 문화유산과 동일한 틀로는 관리하기 어렵다. 두루마리 형태의 내방가사 자료가 6,000여 필을 넘는다는 추론이 있지만, 원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계에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정옥, 2019). 이러한 현황은 내방가사가 지닌 세계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비해 접근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방가사의 접근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향유 맥락, 필사자, 가문,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방가사만의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기록유산은 기록물 중에서 역사·문화·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후대에 보존할 만한 의미를 지닌 기록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가기록유산 등으로 분류되며 의도적인 보존·활용의 대상이 되는 가치 있는 기록물이다.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 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한글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한 주체적인 기록으로, 이러한 기록유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국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재가 추진되고 있으나, 구비문학적 특성과 향유층의 고령화로 인해 자료의 원형과 전승법에 대한 보존이 어려우며 기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개정된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에 의하면 세계기록유산 제도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닌 기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보호하며,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접근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세계적으로 공감할 만한 가치를 가진 기록을 단순히 보존·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기록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다(이상호, 2023). 유네스코는 협약 당사국에게 기록유산을 식별하여 목록화하

고 기술적으로 보존하며,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그러므로 내방가사가 지닌 세계적 가치를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편적 접근과 검색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문화유산의 통합 관리 체계

문화유산은 연구, 교육, 관광 및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큰 정보자원으로 복원 및 보존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지만,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분절적 체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박희진, 2019; 이은영, 2019; 한희정, 2018).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민간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 기록이 유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행정 편의상의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가 호환되지 않으면 각 기관별로 파편적으로 단절된 정보만 제공하게 되며, 연구자들의 학술적 이용과 일반 이용자들의 문화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을 포함한 국내외 많은 분야에서 문화유산과 정보자원, 관련 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과 통합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박희진, 2019; 이길환, 2024; 이은영, 2019; 한희정, 2016).

디지털 아카이브의 통합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관별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특히 내방가사를 포함한 문화유산은 창작자, 소장처, 이본 등 자료 자체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복잡한 맥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계 정보의 기술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표준을 적용하여야 기록이 가진 연계 정보와 맥락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국제기록관리협회(ICA)는 2012년부터 다중 출처 맥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차세대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AD(G), ISAAR(CPF) 등의 기존 기록물 기술 표준이 위계적 단일 개체 중심으로 설계되었거나, 타 표준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물의 상세한 맥락 기술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정희명, 이성숙, 2021). 개별 기관에서는 국제기록관리협회(ICA)가 제공하는 기술 표준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다. 기록마다 다른 기술 요소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디에든 적용 가능하며 기관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을 공유하여 데이터 자체를 표준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과 관련된 맥락 정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이용자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인물, 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박희진, 2019).

우리나라는 2007년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 데이터 제작 지침」을 통해 기록화 대상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기록화 사업에 대한 표준 제작 절차 및 데이터 제작 매뉴얼을 공유하여 문화유산 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기 시작했으나,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문화재청, 2007). 현재는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유물분류표준’과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박희진, 2019). 그러나 기관마다 상이한 분류 체계 및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면 정보의 상호호환성 및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여 정보를 관리·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한희정 외,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메타 정보의 부족과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한 검색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박희진, 2019; 이은영, 2019; 한희정, 2018). 그러므로 효율적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유산의 범주와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유관 기관의 문화유산 정보자원 통합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자료의 접근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유산 관리 기관은 기본적으로 각자 다른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박희진, 2019). 그러므로 둘째, 기존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계형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관리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박희진, 2019; 이길환, 2024; 이은영, 2019; 한희정, 2018). 데이터 자체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통일시키지 않아도 검색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자원들의 상호호환과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허브 시스템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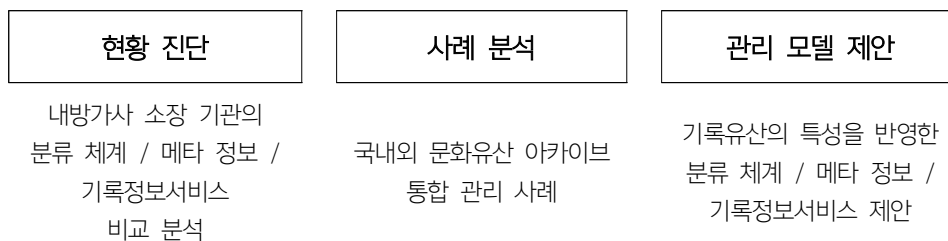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유로피아나의 데이터 표준 모델인 EDM(European Data Model)이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들을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연결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박희진, 2019), 영국의 디아스포라 아카이브는 세계 각자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작가 관련 기록 정보에 접근을 제공하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이은영, 2019). 국내에서도 기존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연계하는 개방형 시스템이 한문소설, 문학기록, 무형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관리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박희진, 2019; 이길환, 2024; 이은영, 2019; 한희정, 2018).

이처럼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 효율적 검색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접근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통합 관리 방법론을 기록의 특성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 통합 대상 기록의 자료적 특성과 실무 환경을 고려하여 기록의 진

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 통합 관리 모델을 고민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부가가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와 자료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기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관리 체계와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보유 기관의 소장 기록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국내외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관리 사례를 통해 내방가사와 유사한 자료적 특성을 가진 기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한다. 최종적으로 기술 요소와 서비스 면에서 실현 가능한 내방가사 자료의 통합 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설계 도식화

내방가사는 가사문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자료의 양이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순희, 201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내방가사는 한국국학진흥원이 관리하는 292점,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한 226점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가사문학관 등 다수 기관이 보유한 작품을 포함하여 총 567점이다(경북일보, 2025).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화 현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재 심사 대상 내방가사의 주요 관리 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국립한글박물관은 소장 기록의 목록과 메타 정보를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소장 기록의 목록과 메타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와 담당자 면담을 통해 기관별 관리 체계와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상이한 주요 업무 내용과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을 파악하고, 소장 기록에 대한 분류 체계 및 메타데이터 비교하여 내방가사의 자료적 특성에 알맞은 통합 관리 모델을 고민하고자 한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공통 목적은 가치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접근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자원의 활용과 부가가치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료적 특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관리 체계와 기록정보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단계적 분석 과정을 거쳐 기술적 요소(메타데이터 표준화)와 서비스 측면(이용자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에서 실현 가능한 내방가사 통합 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산재된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록관리 실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명	소장 기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 대상 기록	웹사이트 제공 메타 정보
한국국학진흥원	대명복수가, 도산별가, 훈민가, 화전가, 계여가 등	292점	소유자, 제목, 내용, 크기, 연도, 주기사항, 형태, 관리자, 이미지
국립한글박물관	계녀가, 칠녀가, 한양가, 유흥답가, 원별가 등	226점	명칭, 시대, 수량, 자료번호, 크기, 내용, 이미지

<표 1> 기관별 소장 기록과 메타 정보

4. 결론

본 연구는 기록유산으로서의 내방가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현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내방가사의 통합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내방가사는 세계적으로 중요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기록유산이며,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인류의 공동 문화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기관별로 상이한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분절적 관리 체계는 정보자원에 대한 검색을 어렵게 하고 연구자들의 학술 논의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향유를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술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특성을 기록관리학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성 기록의 보

존과 활용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확장한다. 기존 연구가 내방가사의 문학적·여성학적 가치에 집중되었다면(이정옥, 2019), 본 연구는 이를 기록관리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관리 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둘째, 기관별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합 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분산된 상태의 내방가사 관리 현황을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협력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국내외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관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안한다. 국내외 아카이브의 개방형 통합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기록유산 통합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현재 기록유산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호·전승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 내방가사의 통합 관리 방안은 단순히 한 가지 자료 군의 관리 문제를 넘어, 국내 문화유산 전반의 분산 관리 문제를 고려하는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기록유산의 통합 관리는 단순한 기술적 표준화를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자원의 민주적 활용을 실현하는 기록관리의 근본적 책무이다. 특히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문화자산인 내방가사를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자원의 민주적 활용을 제고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고순희 (2023). 내방가사의 기록문학적 가치와 연구방향. 한국시가연구, 60, 187-205.
10.32428/poetry.60..202402.187
- 김규현 (2025. 11. 24). 조선 여성들이 쓴 ‘내방가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내 후보 선정.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30937.html>
- 김윤희, 정복동, 서주연, 정기선, 안귀남, 정인숙, 최은숙, 고순희, 백순철, 권영호, 신하영 (2020).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내방가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 국가유산청 (2019). 디지털 시대의 문화유산. 출처: https://www.khs.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JuUpqm1F2m5as6VPnLpUgY1qoyP4CCVxOO1NsgMuTTqVxWRMl3zYF1DdgYkPITeJ.cha-was02_servlet_engine1?nttId=73713&bbsId=BBSMSTR_1008&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searchUseYn=&searchCn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1_09_01
- 국가유산청 (발행년불명). 세계기록유산. 출처: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worldMemHeritageInfo.jsp&pageNo=4_4_1_0
- 국립경국대학교 (2015).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 정리 및 DB구축 결과보고서.
- 류명옥 (2023). 내방가사 향유문화의 대중적 확산과 K-culture로 경계 넘기. 안동학연구, (22), 99-119.
-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2007). 문화재청훈령 제109호.
- 박희진 (2019).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117-136.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17>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88). 조약 제966호.
- 오종명 (2025. 11. 24.). 안동 ‘내방가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국내 후보 선정. 경북일보. 출처: <https://v.daum.net/v/W7DIK9WIII>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발행년불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https://www.unescoicdh.org/home/sub.php?menukey=27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등재 및 네트워크. <https://unesco.or.kr/whc/>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 <https://unesco.or.kr/standard/>
- 이길환 (2024). 한국한문소설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연구 한국한문소설DB 편찬을 위한 구체적 설계. 한문학보, (51), 67-136.
- 이상호 (2023). MOW 디지털 관련 권고의 한계와 ‘디지털 기록유산’ 정책 방향. (52), 467-508.

- 이은영 (2019). 국가문화유산으로서 문학기록의 조직화 방안. 기록학연구, (61), 31-69.
<https://doi.org/10.20923/kjas.2019.61.031>
- 이정옥 (2019).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 국학연구, (40), 9-38.
- 정희명, 김순희 (2024).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의 주요 연구영역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4), 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01>
- 정희명, 이성숙 (2021).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물 맥락 기술을 위한 Records in Contexts-Ontology(RiC-O) 적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23-48.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2.023>
- 한희정, 오효정, 김태영, 김용 (2016).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95-1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2.095>
- 한희정, 두효철, 이영지, 오효정 (2018).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9(2), 199-2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2.199>

현대미술의 비물질화에 따른 기록의 위상 변화와 보존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 노서진

1. 서론

현대미술은 미술사의 변화에 따라 회화와 조각 중심의 물질적 오브제에서 개념, 행위, 과정, 설치, 기술을 활용한 비물질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작품의 정체성을 물질적 원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현대미술 보존의 문제를 단순한 물질 보존의 차원을 넘어, 무엇을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현대미술의 보존에서 핵심 질문은 작품이 원래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라 무엇을 동일한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볼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의 역할에도 직접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미술관에서는 기록을 작품의 상태, 개요, 작가 정보 등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는 작가의 의도, 설치 방식, 기술 환경, 재현 조건, 변화 이력 등이 작품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기록은 더 이상 작품의 부수 자료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기록은 작품의 진본성을 판단하고 설치와 재현의 가능성을 확보하며 장기적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이 점에서 현대미술의 보존 문제는 미술사나 보존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비물질화에 따라 작품의 보존 대상이 물질적 원형에서 비물질적 요소로 확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와 함께 현대미술 보존의 핵심 쟁점이 진본성 보존의 문제로 재구성됨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진본성 보존 과정에서 기록이 수행하는 역할과 아카이브의 기능을 분석한다. 현대미술 보존 사례를 통해 기록 중심의 보존 가능성과 미술관 기록관리 실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현대미술의 비물질화는 작품의 본질을 물질적 형식에서 개념, 행위, 과정, 맥락의 차원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대미술은 재료와 기술의 불안정성, 설치와 재현의 가변성이라는 문제를 드러낸다. 에바 헤세의 라텍스 작품과 백남준의 CRT 기반 미디어아트는 재료의 열화와 기술 장치의 단종이 작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사탕 연작과 백남준의 <TV 정원>은 작품의 동일성이 하나의 물질 형식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설치 조건이나 반복적

재현의 규칙 속에서 유지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본성의 개념 역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존 이론이 원형, 외형, 물질적 원본성 유지에 중심을 두었다면, 현대미술에서는 작가의 의도, 개념적 요소, 설치 방식, 기술 환경, 관람 경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기록학에서는 진본성은 기록이 그것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이며, 정체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 이 두 관점을 함께 보면 현대미술 보존에서 진본성은 더 이상 물질적 원형의 보존 여부만으로 판단될 수 없고,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통해 판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은 현대미술 보존의 핵심 수단이 된다. 첫째, 작가 인터뷰, 기술 채록, 설문지, 작업 노트, 작가 진술서와 같은 기록은 작품의 개념적 배경과 제작 맥락을 구체화한다. 이런 자료는 보존 과정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어떤 변화를 허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VMQ(Variable Media Questionnaire)는 작가의 의도를 질문지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이는 곤잘레스-토레스의 작품처럼 설치와 재현 조건이 모호한 경우 보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김형구 <하루의 정오>와 코디최 <원반 던지는 사람> 사례는 작가 노트와 인터뷰가 실제 보존처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때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설치·재현을 위한 기록은 작품의 반복적 구현을 위한 실행 기준으로 기능한다. 설치 지침서, 공간 계획도, 기술 문서, 장비 목록, 설치 도면, 전시 사진과 영상은 작품이 어떤 방식과 환경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황인기의 <몽유 몽유> 작품에서 작가가 제공한 도면과 부품 정보는 분실된 레고 조각을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 했다. 빌 비올라의 artist kits는 하드웨어와 설치 조건을 문서화함으로써 이후 재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DOCAM은 구성요소 기록표와 묘사 기록표를 백남준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재조립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설치·재현 기록은 단순한 설명서가 아닌, 작품 구현을 위한 기보 체계이자 실무자들 사이의 소통 매개체가 된다.

셋째, 생애주기 기록은 작품의 진본성을 사후에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현대미술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시와 이동, 상태 변화, 보존처리, 수리와 교체, 기술 매체의 변경, 재설치 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은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설치 보고서를 통해 작품이 설치될 때마다 누가 어떻게 설치했고, 어떤 요소가 조정됐는지 기록함으로써 반복 설치와 역사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김순기의 <주식거래>는 야후 코리아의 서비스 중단 이후 프로그램 수정 기록이 작품의 작동 원리와 구현 방식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백남준의 <다다익선>에서는 설계 도면, 현장 사진, 관계자 기록, 메모 등이 작품의 장기 보존 방향을 모색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생애주기 기록이 단순한 관리 이력에 그치지 않고 작품 변화의 근거와 판단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처럼 현대미술의 변화는 기록과 아카이브의 위상도 바꾸어 놓았다. 전통적 보존 이론에서 기록은 작품의 물질적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머물렀지만, 현대 미술에서는 기록이 작품의 비물질적 원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특히 물질적 원형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작품의 개념과 설치 방식을 담은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작품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정보의 보존' 패러다임이 중요해진다. 이때 아카이브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작품의 진본성을 입증하고 미래의 재현을 설계하는 증거적 기반이 된다.

3. 결론

현대미술의 비물질화는 작품 보존의 대상을 물질적 원형에서 개념, 의도, 설치 방식, 기술 환경, 재현 조건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로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미술 보존의 핵심은 단순한 물질적 보존이 아니라, 무엇을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작가의 의도와 제작 맥락을 확인하고, 설치와 재현을 가능하게 하며, 작품의 변화 이력을 추적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 현대미술의 변화는 곧 기록의 역할 변화로 이어졌다. 현대미술에서는 기록이 작품의 개념, 작가의 의도, 설치 방식, 기술 환경, 변화 이력 등이 작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에 기록은 더 이상 작품의 부수적 자료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해, 현대미술의 보존에서는 기록과 작품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기록은 작품의 진본성을 보증하고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또한 현대미술 보존은 단지 작품만의 문제가 아닌,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며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관 기록관리의 실천과 역할 또한 재구성한다. 아키비스트는 더 이상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담당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품의 맥락과 진본성을 이해하고 보존 방향을 조정하고, 재현과 설치의 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보존 문제는 기록관리의 문제로 확장되며 미술관에서 기록관리가 보존을 위한 실천의 중심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현대미술의 변화와 비물질화는 미술관에서의 기록의 위상 변화를 가져왔고, 기록은 오늘날 작품의 지속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원. (2023). 미디어아트의 현황과 미래. 『MEDIA ISSUE & TREND ISSUE REPORT』, 01, 4.
- 배수빈, 한경순. (2018). 뉴미디어 아트 보존에 대한 고찰: 국내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33, 137-147.
- 설문원. (2005). 기록의 품질 기준 분석 -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0(11), 41-89.
- 유진희. (2023). 백남준의 <다다익선>과 보이지 않는 기술자들. 『과학기술과 사회』, .(5), 112-173.
- 이셋별. (2017). 『뉴미디어 아트 보존을 위한 기술적 보존 전략과 기록관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엽. (2012). 다다익선 설치과정과 보존전략. 『다다익선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8-29.
- 조상운, 권희홍. (2025). 현대미술의 변화에 따른 비물질적 가치의 보존 전략 -아카이브의 역할과 사례 연구-. 『보존과학회지』, 41(2), 243-255.
- 주연우, 오준호. (2015). 시간기반 미디어아트의 진본성 개념과 보존전략의 관계.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1, 386-396.
- 한송이. (2019). 『김순기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njamin, W. (2013).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In 도널드 프리지오시 편저,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 587-597. 서울: 미진사.
- Brandi, C. (1963). 『Teoria del Restauro』. Turin: Einaudi.
- Cherry, D. (2007). Spatial conversations: On the candy spills of Felix Gonzalez-Torres. 『Arte e Ensaios / Arts and Essays』, 14, 96-109.
- Corzo, M. A. (1999). 『Mortality immortality: The legacy of 20th century art』. Los Angeles: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Depocas, A., Ippolito, J., & Jones, C. (2003). 『Permanence Through Change: The Variable Media Approach』. New York: Guggenheim Museum Publications and The Daniel Langlois Foundation for Art, Science, and Technology.
- Duranti, L. (1995).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The concepts and their implications. 『Archivaria』, 39, 5-10.
- Duranti, L., & Eastwood, T. (1995). Protecting electronic evidence: A progress report on a research study and its methodology. 『Archivi and Computer』, 3, 213-250.
- Ippolito, J. (2003). Accommodation the unpredictable: The variable media questionnaire. In A. Depocas, J. Ippolito, & C. Jones (Eds.), 『Permanence Through Change: The Variable Media Approach』, 47-53. New York: Guggenheim Museum Publications.
- Lippard, L. R. (1997). 『Six years: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art object from 1966 to 197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ppard, L. (1971). 『Changing』. New York: E. P. Dutton.
- Morera, C. S. (2017). Where is the authenticity of the contemporary art? 『Ge-conservacion』, 11, 214-218.

I 학위논문 연구 계획서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를 통한 정책홍보물의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발표세션 발표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 석사과정 3학기 김재민

I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를 통한 정책홍보물의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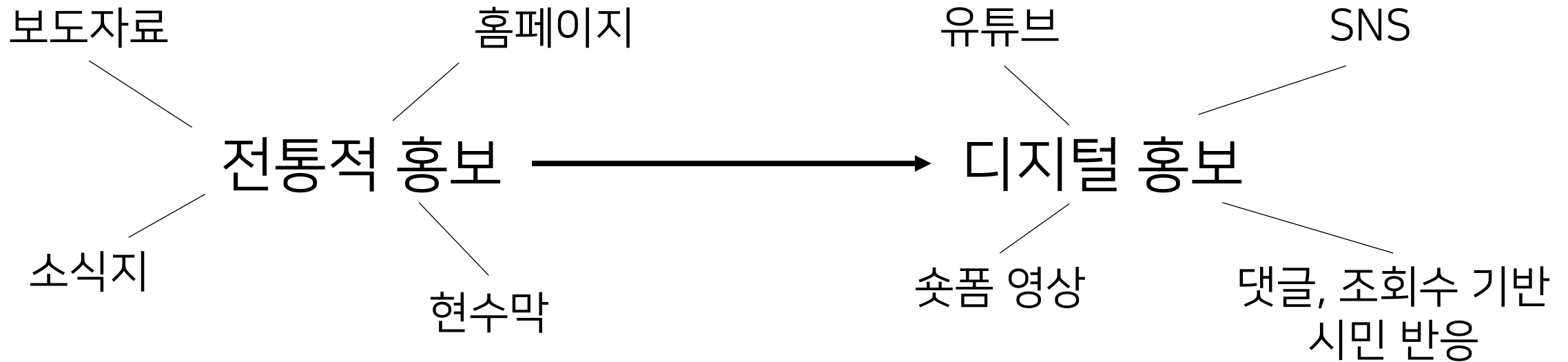
제도적 근거, 선행연구, 연구질문 및 방법론

III.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향후 조사계획, 기대효과

IV.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 정책홍보의 디지털 전환



| 유튜브를 통한 정책홍보물은 기록관리 대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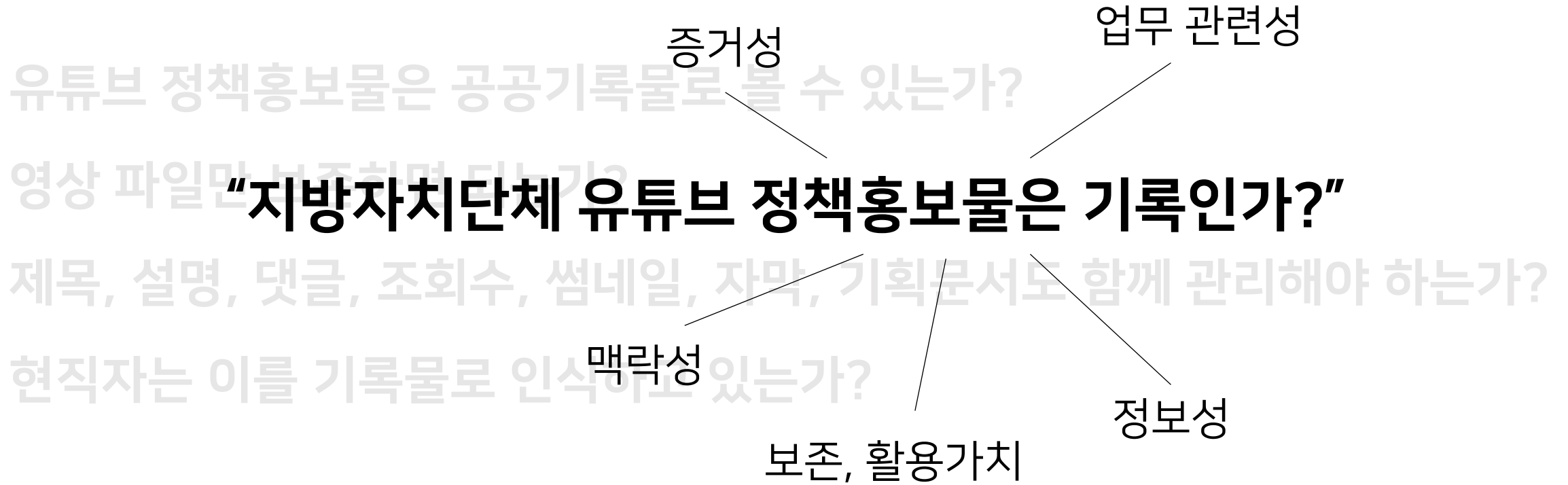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

영상 파일만 보존하면 되는가?

제목, 설명, 댓글, 조회수, 썸네일, 자막, 기획문서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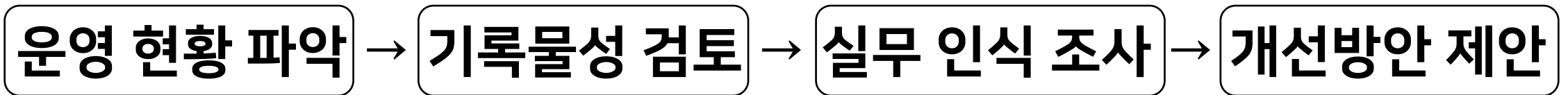
현직자는 이를 기록물로 인식하고 있는가?

| 유튜브를 통한 정책홍보물은 기록관리 대상인가?



I. 서론: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유튜브를 통해 생산·게시하는 정책홍보물의 운영 현황과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 관점에서 해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2] 연구 목적 도식

II. 본론. 제도적 근거: 공공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

I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시청각기록물' 정의

“매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저장·재생되는 기록물”*

공공업무 수행

↓ 정책홍보 목적 영상 생산

↓ 시청각기록물

↓ 등록·편철·이관·보존 대상

“**정책홍보 영상은 홍보물인 동시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로 검토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4).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기록관리 요소?

영상 파일

촬영 원본
최종 편집본

부속자료

자막
썸네일
설명문
기획안
외주계약서

플랫폼 정보

제목
설명
게시일
URL
조회수
댓글
좋아요 수

관리 정보

생산부서
생산일자
단위과제
보존기간
공개여부

II. 본론. 선행연구 검토

연구 흐름 ————— 주요내용 ————— 본 연구와의 연결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 기록관리 체계와 평가 ————— 관리 현황 조사 기준

유튜브·정책홍보 ————— 콘텐츠 특성, 시민 반응 ————— 정책홍보물의 기능 파악

소셜미디어·시청각기록관리 ————— 메타데이터, 보존, 지침 ————— 기록물성 판단 기준

II. 본론.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 공백

I 기존 유튜브 관련 연구

홍보효과, 댓글 반응, 지역이미지, 조직-공중관계성 초점

예) 신성일, 이은순. (2023), 신성일. (2024), 곽나린, 노희경. (2024)

I 기존 기록관리분야 연구

시청각기록물, 소셜미디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필요성 제시
단,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행정 현장에서의 기록관리 연구 부재

I 본 연구의 특성

기존 유튜브 연구 - 기존 기록관리분야 연구 연결.

II. 본론. 연구 질문

RQ1. 지자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어떤 유형과 운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RQ2. 지자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공공기록물로서
어떤 기록물성, 보존가치, 이용가치를 가지는가?

RQ3. 지자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운영 특성 분석 → 기록물성 판단 →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II. 연구방법. 기초자료조사와 후속조사

I 기초자료조사

대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식 유튜브 채널(243개)

방법: 엑셀활용 자료 수집 및 SPSS 활용 상관관계 분석

(채널명, 채널URL, 채널 설명, 개설일, 구독자 수, 영상 수, 총조회수, 채널 로고, 채널 배너 등)

분석항목: 채널 운영 규모, 이용자 반응, 시각적 정체성, 정책 홍보물 게시 양상
구독자 수, 영상 수, 총 조회수, 평균 조회수 등의 상관관계 분석

I 콘텐츠 내용분석

대상: 표집 채널 (최다 구독자, 최다 인구수, 최다 조회수 등)

방법: 기술적 분석 및 분류

분석내용: 정책홍보, 재난안전, 관광 및 문화, 기관장 활동 등

I 설문 및 면담

대상: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운영 담당자, 홍보 담당자, 기록물관리 담당자

설문내용: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기록물 인식, 기록관리 실태 및 개선요구

연구 흐름도

- ↓ 기초자료조사
- ↓ 콘텐츠 내용분석
- ↓ 담당자 설문
- ↓ 실무자 면담
- ↓ 개선방안 도출

Ⅲ.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을 '홍보 효과'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공공기록물로서의 생산·보존·활용 관점'에서 분석한다.

향후 연구 계획

1. 기초자치단체 유튜브 채널 기초정보 및 운영 지표 수집
2. 구독자 수, 영상 수, 총조회수, 평균 조회수 등 주요 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3. 대표 정책홍보물 선정, 콘텐츠 유형 및 기록물성 분석
4. 담당자 설문 및 면담 실시, 정책홍보물의 기록관리 인식과 현황 조사
5. 수집 분석된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

Ⅲ. 결론. 기대효과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기록물성 규명
2. 디지털 정책홍보물의 수집·보존 기준 마련
3. 원본, 편집본, 자막, 썸네일, 플랫폼 메타데이터 관리 필요성 제시
4. 홍보부서와 기록관리부서 간 협업 필요성 제시
5.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시청각기록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

IV. 참고문헌

- 곽나린, 노희경. (2024).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콘텐츠 특성이 지속시청의도, 지역브랜드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충주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3), 240-254.
- 김락근, 박진호. (2022). 공공기관 유튜브 동영상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구성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45-65.
- 박재형, 김종무. (2023). 공공기관 정책홍보 정보 제공 유형 차이에 따른 수용자 태도 분석: 보도자료, 카드뉴스, 영상콘텐츠 비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85, 90-103.
- 박종연, 이해영, 서효선, 김우희. (2019).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251-274.
- 신성일, 이은순. (202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충주시 유튜브 채널 댓글 분석: 지자체 유튜브 PR 콘텐츠 수용 특성과 조직-공중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27(4), 1-37.
- 신성일. (2024).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PR 커뮤니케이션과 조직-공중관계성에 관한 연구: 충주시 유튜브 채널 이용자 댓글 분석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이정민, 이정은, 신청룡, 오효정. (2020).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기록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구성요소 도출 연구: 국외 정책·사례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111-15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4).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